

2021
수특

2021 수능특강 문학 2. 적용학습 고전시가 01 구지가 작자미상 분석

이 콘텐츠는 「콘텐츠산업 진흥법」,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본 콘텐츠의 무단 배포 시, 콘텐츠산업 진흥법과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지문 분석

거북(신령스러운 존재, 주술의 대상)아, 거북아,	[부름] 龜何龜何
머리(수로왕, 생명의 근원, 노래를 부르는 근본 목적)를 내어라.	[명령] 首其現也
내어 놓지 않으면,	[가정] 若不現也
구워서 먹으리.(‘불’의 이미지가 내포되어 있음)	[위협] 燔灼而喫也
	▶ 1-2행 : 요구 : 임금의 강림을 기원함
	▶ 3-4행 : 위협 : 소원 성취를 위한 위협
	-작자미상, 구지가

▣ 핵심 정리

- 구성 - 1,2행(요구). 3,4행(위협)
- 갈래 - 4구체 한역 시가,
- 연대 - 신라 유리왕 19년(AD 19년)
- 성격 - 주술요, 서사적, 노동요, 집단 무가
- 표현 - 주술적, 직설적 표현, 명령 어법
- 별칭 - 영군가(迎君歌), 영신군가(迎神君歌), 구지봉 영신가, 가락국가
- 주제 - 수로왕 강림 기원
- 의의 - 현전(現傳)하는 것 중에 가장 오래된 집단 무요. 주술성을 지닌 것 중에 가장 오래 된 노동요
- 관련 - 구지가의 아류작(亞流作)에 해가(海歌)가 있음

▣ 작품 해설

이 노래는 가락국 건국 신화 속에 들어 있는 삼입 가요로서, 수로왕을 맞이하기 위해 구지봉의 흙을 파서 모으고 춤추는 과정에 불렸다는 점에서, 고대 시가의 제의적, 집단적, 주술적 성격을 단적으로 보여 준다. 이 노래의 핵심인 ‘거북’이 신령스런 존재를 상징한다고 볼 때, 거북의 머리는 생명을, 머리를 내놓는 것은 새로운 생명의 탄생을 뜻하는 것으로, 하늘에서 내려온 알로부터 수로왕이 탄생하는 것과 일치한다.

거북으로 하여금 그렇게 하도록 위협하는 행위에서 고대인의 소박한 상징과 주술적 의도를 엿볼 수 있다. 이 노래는 한역(漢譯)되어 전하지만, 당시에는 가락국의 건국 신화의 일부로 존재했다가 민간에 구비 전승된 것으로 보인다. 신라 성덕왕 때 수로(水路) 부인이 바다의 용에게 잡혀갔을 때 백성들이 집단으로 불렀다는 「해가」에서 이러한 전승 과정을 확인할 수 있다.

▣ 배경 설화

작자와 연대가 밝혀지지 않은 고대 가요. <삼국유사> 제2권 기이·가락국기(駕洛國記)에 관련 설화가 실려 있다. 가락국 백성을 다스리던 9명의 추장은 42년(후한 건무18) 3월, 김해 구지봉에서 신의 목소리를 듣고 신의 계시대로 백성들을 구지봉에 모아 놓고 흙을 파헤치며 "거북아, 거북아, 머리를 내놓아

라 내놓지 않는다면 구워서 먹으리(龜何龜何 首其現也 若不現也 燔灼而喫也)"라는 노래를 합창하도록 했다. 이후 하늘로부터 자주색 노끈이 내려왔고 그 끝에는 붉은 보자기에 싸인 금합에 황금빛 알 여섯개가 들어 있었다. 며칠 뒤 금합을 열어보니 모두 용모가 준수한 동자로 변해있었는데, 이 중 가장 큰 알에서 나온 사람이 수로왕이었다고 전한다.

■ 관련 작품 - '해가(海歌)'

구지가 계통의 노래로 신라 성덕왕 때 수로부인이 해룡(海龍)에게 잡혀가자 남편인 순정공이 마을 사람들을 동원해서 불렀다고 한다. 구지가가 오랜 세월 민간에 구비 전승되어 왔음을 확인해 준 노래이다.

龜乎龜乎出首露(구호구호출수로) 거북아, 거북아, 수로를 내 놓아라.
 掠人婦女罪何極(약인부녀죄하극) 남의 아내 앓았으니 그 죄가 얼마나 큰가?
 汝若悖逆不出獻(여약패역불출헌) 네 만약 거스르고 내놓지 않는다면
 入網捕掠燔之喫(입망포략번지끼) 그물로 너를 잡아서 구워 먹으리라.

(삼국유사 권2)

■ 시어 '거북'과 '머리'의 상징적 의미

- 거북 : 신령스러운 존재이자, 인간의 집단적 의지에 복종하는 존재
- 머리
- ① 생명 : 새로운 생명, 탄생(임금의 탄생)
- ② 우두머리 : '머리'는 최고와 으뜸을 상징하므로 지도자, 임금을 뜻함, 수로왕
- ③ 남근 : 거북의 머리는 외형이 남근과 유사함. 생명력의 근원

■ '구지가'의 성격

근거	→	성격
염원을 하며 노래를 불렀고, 그 염원이 이루어졌다.	→	주술가
3월 계옥일에 흙을 파면서 불렀다.	→	노동요
많은 사람들이 함께 불렀다.	→	집단요
임금을 맞이하는 행사에서 불렀다.	→	영신군가

2021
수특

2021 수능특강 문학 2. 적용학습 고전시가 01 꽃샘바람 이규보 분석

이 콘텐츠는 「콘텐츠산업 진흥법」,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본 콘텐츠의 무단 배포 시, 콘텐츠산업 진흥법과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지문 분석

꽃 필 땐 **미친바람**(일정한 방향도 없이 마구 휘몰아쳐 부는 사나운 바람)도 많으니 花時多顛風
사람들은 **꽃샘바람**(이른 봄, 꽃이 필 무렵에 부는 쌀쌀한 바람)이라 하네 人導是妬花
조물주(화자는 '조물주'가 꽃을 위해 자신의 공력을 허비한 존재라고 생각함)가 모든 꽃을 만들 때 天工
放紅紫
마치 한없는 비단을 가위질해 놓은 듯(꽃이 마치 잘라 놓은 비단처럼 아름다움) 如剪綺與羅
이미 그토록 공력을 허비했으니(조물주가 꽃을 정성스럽게 만들었음) 既自費功力
꽃 아끼는 마음 응당 적지 않으려만 愛惜固應多
어찌 그 고운 것을 시기하여 豈反妬其
도리어 미친바람 보냈겠는가(설의법을 통해 꽃샘바람이 고운 꽃을 시기해서 부는 것이 아니라는 화자의
생각을 전달함) 而遣顛風加
바람이 만일 하늘의 명을 어긴다면 風若矯天命
하늘이 어찌 죄주지 않으랴(바람은 하늘의 명을 어길 수 없으며, 꽃샘바람이 하늘의 명을 어긴 것이 아
님) 天豈不罪耶
이런 법이야 반드시 없을 것이니 此理必不爾
나는 사람들 말이 잘못이라 한다네 我導人言訛
바람의 직책은 만물을 고무하는 것 鼓舞風所職
만물에 은택 입히니 사사로움 없으리라(바람은 만물을 어루만져 꽃을 피우고, 또 열매를 맺기 위해 꽃
을 지게 함, 바람은 사람들처럼 사사로움 애증을 보이지 않으며, 세상 모든 만물을 복돋우고 정성을 다
함) 被物無私阿
만일 꽃 아껴 바람 불지 않는다면 惜花若停簸
그 꽃 영원히 성장할 수 **있으랴**(설의법) 其奈生長何
꽃 피는 것도 좋지만 花開雖可賞
꽃 지는 것 또한 슬퍼할 게 뭐랴 花落亦何嗟
피고 지는 것 모두가 자연인데 開落摠自然
열매가 있으면 또 꽃을 낳는 것이야 有實必代華
오묘한 우주의 이치 묻지 말고(‘오묘한 우주의 이치’를 운영하는 존재는 조물주로, 인간이 알가알부할
수 없는 문제임) 莫問天機密
술잔 잡고 소리 높여 노래나 부르자 把杯且高歌

▣ 핵심 정리

- 구성 - 1~12행(꽃샘바람이 잘못 붙인 이름임을 주장함). 13~22행(우주의 오묘한 이치에 대한 통찰)
- 갈래 - 한시, 7언 배율, 서정시
- 성격 - 성찰적, 낙관적, 교훈적, 순응적
- 주제 - 생장 소멸의 오묘한 이치

■ 특징

- 감각적 표현을 통해 시상을 구체화함
- 직유법, 의인법을 통해 함축적 의미를 드러냄
- 설의적 표현을 통해 화자의 깨달음 강조

▣ 이해와 감상

이 작품의 제목인 '꽃샘바람'은 보통 꽃을 시기해서 부는 바람이라는 뜻으로 쓰인다. 그러나 화자는 이 이름이 잘못 붙여진 것이라고 말한다. 바람의 본분은 만물을 고무하는 것으로, 바람이 꽃을 지게 하는 것 또한 자연의 순리라는 것이다. 하나의 자연 현상에서 우주의 이치를 끌어내는 이규모의 예리한 통찰력을 확인할 수 있는 작품이다.

2021
수특

2021 수능특강 문학 2. 적용학습 고전시가 02 동동 작자미상 분석 서술형문제

이 콘텐츠는 「콘텐츠산업 진흥법」,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본 콘텐츠의 무단 배포 시, 콘텐츠산업 진흥법과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지문 분석

덕(德)일랑 **곰배**(뒷잔에 혹은 신령님께)에 받잡고
복(福)일랑 **넙배**(앞잔에 혹은 임금님께)에 받잡고
덕이여 복이라 호날

나아라 오소이다(드리러 오십시오)

아으 동동다리(후렴구, 악기 소리를 흥내낸 의성어로 볼 수 있음)

<서사> : 임(임금)의 덕과 복을 기원함

정월(음력으로 한 해의 첫째 달) **나릿물**(넷물, 화자의 처지와 대비되는 자연물)은

아으 어저 녹저 하는데

누리 가운데 나곤

몹(화자)하, 호올로 녀셔

아으 동동다리

<정월 노래> : 임 없이 살아가는 외로운 처지를 호소함.

이월 보름(세시 풍속 : 연등회)에

아으 **높이 현 등**(燈)불(고매한 인품을 지닌 임에 대한 비유) **다호라**(예찬적, 영탄적 어조)

만인(萬人) 비취실 **좃이삿다**(예찬적, 영탄적 어조)

아으 동동다리

<2월 노래> : 임의 빼어난 인품을 예찬함

삼월 나며 개(開)한

아으 만춘(滿春) **달래꽃**(임의 아름다운 모습을 비유함)이여

남이 부를 좃을 지녀 나삿다

아으 동동다리

<3월 노래> : 임의 아름다운 모습을 예찬함

사월 아니 잊어

아으 오실셔, **괘꼬리 새**(임과 대비되는 자연물)여

무슴다 **녹사**(錄事)(고려 시대의 벼슬 이름으로, 임의 신분을 나타냄)님은

옛 나를 잊고 계신가?

아으 동동다리

<4월 노래> : 오지 않는 임을 그리워하며 원망함

오월 오일에

아으 수릿날 아침 **약**(藥)(단옷날 먹는 익모초즙)은

즈믄 해를 장존(長存)하실

약이라 받잡노이다

아으 동동다리

<5월 노래> : 임의 장수를 기원함

유월 보름에

아으 별헤 버린 빛(임에게 버려진 화자의 처지 비유) 다호라

돌아보실 님을

조금 좇니노이다

아으 동동다리

<6월 노래> : 버림받은 처지에도 임을 따름

칠월 보름에

아으 백종(百種) 배(排)하여 두고

님을 한데 녀고자(화자의 궁극적 소망 : 임과 함께하고 싶음)

원(願)을 비옵나이다

아으 동동다리

<7월 노래> : 임과 함께 지내기를 기원함

팔월 보름은

아으 가배(嘉俳)(한가위) 날이마란

님을 뵈셔 녀곤

오늘이 가배(嘉俳)샷다(임이 함께해야만 진정한 한가위임)

아으 동동다리

<8월 노래> : 임을 그리워함

구월 구일에

아으 약(藥)이라 먹는

황화(黃花) 꽃이 안에 드니

새서 가만하여라(임의 부재로 인한 쓸쓸함이 드러남)

아으 동동다리

<9월 노래> : 임이 계시지 않아 쓸쓸해함

시월에

아으 저미연 바랏(임에게 버림받은 화자의 처지 비유) 다호라

꺾어 버리신 후에

지니실 한 분이 없으샷다(임에게 버림받은 신세를 한탄함)

아으 동동다리

<10월 노래> : 임에게 버림받아 슬퍼함

십일월 봉당(안방과 건넌방 사이의 흙바닥) 자리에

아으 한삼(汗衫)(독수공방의 외로움) 덮어 누워

슬할 살아온저(사랑하는 임과 떨어져 살아가는 화자의 처지에서 느끼는 슬픔)

고운 님 스식옴 녀셔
아으 동동다리

<11월 노래> : 임과 떨어져 있어 외로워함

십이월 분디나무로 깎은
아으 나알 반(盤)에 저(임과의 사랑을 이루지 못한 화자의 처지 비유) 다호라
님의 앞에 들어 얼이노니
손이 가져다 무르압노이다(이루어지지 않는 사랑)
아으 동동다리

<12월 노래> : 임과의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아 슬퍼함
- 작자 미상, '동동(動動)'

▣ 현대어 풀이

덕일랑 신령님께 바치웁고
복일랑 임에게 바칩니다.
덕이며 복이며 하는 것을
바치러 오십시오.
아으 동동다리

정월의 냇물은
아아 얼고 녹고 하는데,
세상 가운데 나서는
이 몸은 홀로 살아가네.
아으 동동다리

이월 보름에
아아 높이 켜
등불 같구나.
만 사람 비추실 모습이시네.
아으 동동다리

삼월 지나며 핀
아아 봄 산 가득 진달래꽃.
남들이 부러워할 모습을
지녀 나셨네.
아으 동동다리

사월 아니 잊어
아아 오시는구나 꾀꼬리 새여.
어이타 녹사님은
옛날을 잊고 계신지요.
아으 동동다리

오월 오 일에
 아아 단옷날 아침 약은
 천년을 길이 사실
 약이라 바치옵니다.
 아으 동동다리

유월 보름에
 아아 벼랑에 버린 빛과 같구나.
 돌아보실 입을
 잠깐 좇아갑니다.
 아으 동동다리

칠월 보름에
 아아 백종 제물 차려 놓고
 임과 함께 가고 싶네.
 원을 비웁니다.
 아으 동동다리

팔월 보름은
 아아 가윗날이지만
 입을 모시고 다니거든
 오늘이 가위로구나.
 아으 동동다리

구월 구 일에
 아아 약이라고 먹는
 누런 국화꽃 안에 드니
 갈수록 아득하구나.
 아으 동동다리

시월에
 아아 저며 놓은 고로쇠 같구나.
 꺾어 버리신 후에
 지니실 한 분이 없네.
 아으 동동다리

십일월 봉당 자리에
 아아 한삼 덮어 누워
 슬픔을 사르고 있네.
 고운 임 떨어져 살아가네.
 아으 동동다리

십이월 분디나무로 깎은
 아아 소반의 저(젓가락)와 같네.
 임의 앞에 가지런히 놓으니
 손이 가져다 무옵니다.
 아으 동동다리

▣ 핵심 정리

- 갈래 : 고려 속요. 고려 가요. 장가(長歌)
- 형식 : 전 13연의 달거리 노래
- 성격 : 이별의 노래. 민요풍. 송도가(頌禱歌)
- 짜임 : 서사와 본사인 1월에서 12월까지의 달거리로 구성
- 표현 : 영탄법. 직유법. 은유법. 여음구 '동동'은 북소리를 '다리'는 악기 소리 흉내
- 주제 : 임에 대한 송도(頌禱)와 연모(戀慕)
- 출전 : <악학궤범>
- 의의 : 고려속요 중에서 유일한, 우리 문학 최초의 월령체(달거리) 노래

▣ 이해와 감상

우리 문학 최초의 월령체인 이 노래는 분연체 형식과 후렴구 사용 등 형태적인 면에서 속요의 일반적 인 특성을 보여 준다. 이 노래는 일 년 열두 달에 맞춰 한 여인의 정감을 노래하고 있는 연가풍(戀歌風)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서사(1연)는 공적인 임(임금)에 대한 송도(頌禱)의 성격이 짙어 이 노래가 궁중에서 불려졌던 의식가(儀式歌)였음을 보여 준다. 이런 형식의 노래로는 “동동” 외에 “관등가(觀燈歌)”와 “농가월령가(農家月令歌)”가 있고, 민요에 “청상요(靑孀謠)”가 있다. 또, 조선 성종 때의 문인 성현(成俔)이 지은 “전가사십이수(田家詞十二首)”와 같은 한시도 있다. 달거리의 특징은 농경 생활이 반영되어 있으며, 세시기(歲時記)의 성격을 띠고 있다는 점이다. 전 13연으로 이별한 임을 그리워하는 내용인데, 제1연만은 임을 송도(頌禱)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 노래는 달이 바뀔 때 따라 연으로 구분되고, 한 연이 끝날 때마다 여음이 나타난다. 서정적 자아는 여성이며, 임은 남성이다.

▣ 내용 정리

1연 : 임에 대한 송도(頌禱)를 내용으로 하는 이 노래의 서사(序詞)로서, 이 노래가 궁중에서 불려졌다는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의식가(儀式歌)의 절차를 갖추기 위해 후대에 덧붙여진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등장하는 '임'은 개인적 정서와 관계된 '임'으로 볼 수 있지만, '임금'과 같은, 공적인 존재로서의 '임'이라는 의미를 질게 풍긴다. 이는 일 년 열두 달에 맞추어 한 여인의 정감을 노래하고 있는 연가풍(戀歌風)의 나머지 연에 등장하는 '임'과 구별되는 점이다.

2연 : 달거리의 정월령으로 생의 고독과 임에의 그리움을 노래하고 있다. 정월과 넷물이 열다가 녹으려 한다는 표현은 자신과 임과의 관계와 연결시켜, 중의적인 의미를 지닌 우의적(寓意的) 표현으로 해석할 수 있다.

3연 : 2월 연등절(燃燈節)에 높이 켜 놓은 등불에서 서정적 자아는 만인이 우러러볼 만한 임의 모습을 발견한다.

4연 : 꽃 피는 봄을 배경으로 하는 삼월령에서는, 늦봄에 핀 진달래꽃을 통해 아름다운 임의 모습을 찾고 있다.

5연 : 계절을 잊지 않고 찾아오는 꾀꼬리와 자신을 찾지 않는 녹사 임을 대조시키면서, 임에 대한 그리움에 사무친 서정적 자아의 임에 대한 원망과 한탄을 표현하고 있다.

6연 : 5월 5일 수릿날(단오) 아침에 장수를 기원하며 약을 드는 풍습을 통해, 소중한 존재로서의 임을 나타내고 있다.

7연 : 6월 보름, 흐르는 물에 머리를 감는 유두(流頭) 풍습을 배경으로, 임에게 버림받은 자신의 가련한 처지를, 액땀을 위해 '벼랑에 버린 빗'에 비유하여 한탄하고 있다.

8연 : 7월 보름 온갖 음식과 과일을 차려 놓고 기원을 올리는 백중날, 임과 함께 지내고 싶다는 서정적 자아의 간절한 소망을 빌고 있다.

9연 : 8월 보름 한가위는 일 년 중 가장 즐거운 명절이지만, 임 없이 홀로 지내야 하는 서정적 자아는 자신의 고독과 그리움을 더욱 깊게 확인할 수밖에 없다.

10연 : 9월 황화전(黃花煎)을 해 먹는 중양절(重陽節) 풍습을 배경으로, 서정적 임이 부재(不在)한 상태의 적막한 초가집에서 느끼는 자아의 고독과 한(恨)을 표현하고 있다.

11연 : 임에게 버림받은 자신의 가련한 모습을 '저미연 바랏'에 비유하면서 체념과 애상이 한데 엉킨 애련(哀戀)을 노래하고 있다.

12연 : 임에 대한 그리움에서 오는 서정적 자아의 괴로움을 '봉당 자리'와 '홀적삼'에 대비시키면서, 사랑의 슬픔을 표현하고 있다.

13연 : 진짓상 위에 놓인 '반에 저'에 서정적 자아 자신을 비유하여, 자신이 사랑하는 임과 현실적으로 맺어질 수 없는 비극적 정황을 노래한 마지막 연이다.

▣ 심화 내용

이 노래는 시상이 일관된 흐름을 보여주지 않을 뿐더러, 각 연마다 나타나는 주제도 통일되어 있지 않아 한 작가의 일관된 정서의 표출이라고 보기 힘들다. 서사와 2, 3, 5월령은 임에게 순수한 송도(頌禱)이다. 이 때의 '임'은 임금이거나 임금처럼 높이 추앙된 공적인 사람일 수 있다. 그러나 정월, 4월령은 개인적 정서, 즉 구체적인 '나의 고독'이며, '나의 임'에 대한 원망적(願望的) 호소이다. 6,7,8월령은 공적 정서와 개인적 정서의 애한(哀恨)이 함께 융합된 중간적 정감의 노래이다. 따라서 이 노래는 원래 연가적(戀歌的) 민요가 궁중으로 흘러 들어가 궁중 연악(宮中宴樂)으로 쓰이면서 변형되었으리라 추측된다. 형식은 민요풍으로서 시어의 구사가 뛰어나며, 현실적으로 맺어질 수 없는 사랑의 비극성을 내포한 서정시다. '동동'은 '농가월령가' 같은 후대의 월령체에 영향을 주었으리라 짐작된다.

2021
수특

2021 수능특강 문학 2. 적용학습 고전시가 03 시조 세 편 분석

이 콘텐츠는 「콘텐츠산업 진흥법」,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본 콘텐츠의 무단 배포 시, 콘텐츠산업 진흥법과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지문 분석 (가)

[이화(梨花)에 월백(月白)하고 은한(銀漢)(‘은하’를 일상적으로 이르는 말, 은하수)이 삼경(三更)인 제](흰 꽃과 은하수라는 백색 이미지의 자연물로 시적 배경을 조성함)

▶ 초장 : 봄밤의 정경

일지 춘심(一枝春心)(나뭇가지가 느끼는 봄의 정서, 의인화)을 자규(子規)(청각적 이미지 환기)야 알나마
는(설의적 표현)

▶ 중장 : 춘심의 심화

다정(多情)도 병(病)(봄밤에 느끼는 심란함)인 양하여 잠 못 드러 흥노라(관련 사자성어 : 전전반측)

▶ 종장 : 봄밤에 느끼는 다정

현대어

배꽃에 하얀 달빛이 비추고 은하수가 자정을 알리는데
나뭇가지 끝에 어린 봄의 정서를 자규가 알겠나마는
다양한 생각과 감정에 젖어 드는 것도 병인 듯하여 잠 못 이르는구나.

▣ 핵심 정리

- 갈래 : 평시조, 서정시
- 성격 : 애상적, 감각적, 다정가(多情歌)
- 제재 : 배꽃, 달, 은하수, 자규
- 주제 : 봄날 밤에 느끼는 애상적인 정서
- 특징 : 시각적 심상과 청각적 심상의 조화를 통한 감각적 표현이 뛰어남.
- 연대 : 고려 말
- 출전 : “청구영언”, “병와가곡집”

▣ 이해와 감상

봄밤에 느끼는 애상적 정서를 시각적 심상과 청각적 심상을 활용하여 형상화한 작품이다. ‘하얀 배꽃’과 ‘환하게 비추는 달빛’, ‘은하수’ 등 고독과 애상의 정서를 시각적으로 형상화하고 있으며, 소쩍새의 울음을 통해 화자가 느끼는 한의 정서를 청각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 작품에 나타난 시간적 배경

이 작품에서 시간적 배경을 나타내는 시어는 ‘이화’, ‘월백’, ‘삼경’이다. ‘이화’는 배꽃이 피는 시기(5월경)인 봄과 관계가 있고, ‘월백’은 달빛이 한창 비추는 밤과 관계가 있다. ‘삼경’은 밤 11시에서 1시 사이, 즉 자정을 가리키는 시어로 한밤중이라는 시간적 배경을 직접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시어를 종합할 때, 이 시조의 시간적 배경은 ‘달빛이 밝은 봄날 밤의 한밤중’임을 알 수 있다.

실제 자연 현상에서도 자정을 전후한 시간에 보름달이 중천에 떠올라 달빛을 쏟아 낸다. 또 배꽃이 피는 5월경에 자정을 전후하여 은하수가 남북으로 길게 하늘을 가로지른다. 따라서 이 시조는 자연 현상을 피상적으로 묘사하지 않고, 작가가 직접 관찰한 것을 사실적으로 표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지문 분석 (나)

시니 흐르는 골에 바회 지혀 초당(草堂)(소박한 삶) 삼고
 ▶ 초장 : 자연 속에서의 소박한 삶

달 아리 밭출 갈고(전원의 농경 생활) 구름 속에 누어시니(신선이 된 듯한 여유로움)
 ▶ 중장 : 전원에서 느끼는 여유로움

건곤(乾坤)이 날드려 날으기를 함과 늣조 하더라(의인화, 인용의 방식, 청유형 어미를 활용한 권유하는 말하기 → 주객전도적 표현 → 몰아일체)
 ▶ 종장 : 자연 친화와 몰아일체의 소망

현대어
 시냇물 흐르는 골짜기에 바위에 의지하여 초가집을 짓고
 달 아래 밭을 갈고 구름 속에 누웠으니
 하늘과 땅이 나에게 말하기를 함께 늣자고 하더라

▣ 핵심 정리

- 갈래 : 평시조, 서정시
- 성격 : 자연친화적, 비유적, 묘사적
- 어조 : 여유로움이 묻어나는 어조
- 주제 : 자연 속에서 사는 삶의 여유로움과 몰아일체의 소망
- 특징
 - ① 시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생생하고 구체적인 삶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
 - ② 자연물을 열거하여 화자가 지향하는 삶의 모습을 드러낸다.
 - ③ 자연물과 친화하여 조화를 이루는 화자의 여유로움을 보여주고 있다.
 - ④ 의인법, 주객전도를 통해 몰아일체의 자세를 드러내고 있다.

▣ 지문 분석 (다)

뫓버들(화자의 분신) 갈히것거(골라서 꺾음 : 화자의 임에 대한 정성을 의미함) 보내노라 님의손디
 ▶ 초장 : 뫓버들을 선별하여 임에게 보냄

자시는 창(窓)밖기(화자의 한계적 처지) 심거 두고 보쇼셔
 ▶ 중장 : 임 계신 곳에 다가가고 싶은 바람

밤비(하강 이미지)에 새넙곳 나거든 날인가도 너기쇼셔(화자의 바람과 요청)
 ▶ 종장 : 임이 자신을 생각해 주기를 바라는 소망

현대어

산에 있는 버드나무 가지를 골라 꺾어 임에게 보내오니
 (임께서) 주무시는 방의 창밖에 심어 두고 보소서
 (행여) 밤비에 새잎이라도 나면 (마치) 나를 본 것처럼 여기서서

▣ 핵심 정리

- 갈래 : 평시조, 단시조, 정형시, 서정시
- 성격 : 감상적, 애상적, 여성적, 연정가, 이별가
- 제재 : 뫇버들, 이별
- 주제 : 임에게 보내는 사랑
- 해제 : 홍랑(紅娘)은 조선 선조 때의 함경도 경성(鏡城) 기생으로 시조 1수가 전하고, 삼당시인(三唐詩人) 최경창(崔慶昌)과 정이 깊었다고 전해진다.

▣ 이해와 감상

이 시조는 선조 6년 최경창(崔慶昌)이 북해 평사(北海評事)로 경성(鏡城)에 가 있다가 이듬해 서울로 돌아가게 되자, 홍랑이 최경창을 영흥(永興)까지 배웅하고 함관령에 이르러 저문 날 내리는 비를 맞으며 버들가지와 함께 보낸 시조이다.

이 시조는 님에 대한 그리움이 잘 드러난 시조로, 초장(初章) 후반부에 도치법을 써서 산(山) 버들을 보내는 뜻을 강조하였다. 또한 비에 젖은 가지에 난 새 잎을 통해 시각적으로 청순가련(淸純可憐)하고 섬세한 여인의 이미지를 풍김으로써 이별의 애상감과 함께 임에 대한 화자의 마음을 강조하고 있다.

2021
수특

2021 수능특강 문학 2. 적용학습 고전시가 04 만흥 윤선도 분석

이 콘텐츠는 「콘텐츠산업 진흥법」,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본 콘텐츠의 무단 배포 시, 콘텐츠산업 진흥법과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지문 분석

山水間(산수간)(정계와 떨어진 곳, 속세와 떨어진 곳.) 바회 아래 뒹집(초가집. 안분지족의 소박한 삶을 보여주는 소재)을 짓노라 하니,
그 모른 **놈들(속세 사람들)**은 운논다 혼다마는,
어리고 **하얌(향암. 시골에 살아 세상 이치를 모르는 사람. 자기 자신을 겸손하게 일컬은 말)**의 뜻의는
내 분(분)인가 흐노라.

▶ 1연 : 안분지족의 삶에 대한 지향

[현대어 해석]

산과 시내(자연) 속의 바위 아래에 움막을 지었더니,
나의 뜻을 모르는 사람들은 비웃는다고 한다마는,
어리석고 시골뜨기인 내 마음에는 이것이 분수에 맞는 것이라 생각하노라.

보리밥 풋나물(안빈낙도의 소박함을 나타내는 소재)을 알마초 머근 후(後)에,

바회긋 몫(자연 (대유법))의 슬긋지 노니노라.⇒ 자연친화적 태도

그 나쁜 녀나쁜 일(세속적인 일. 벼슬살이를 가리킴.)이야 **부롤 줄이 이시라.(설의법)**

▶ 2연 : 소박하고 한가로운 삶에 대한 만족감

[현대어 해석]

보리밥에 풋나물을 알맞게 먹은 후에
바위 끝이나 물가에서 마음껏 놀고 있노라.
이렇게 한가로이 노닐고 있으니 그밖에 다른 일이야 부러워할 일이 있겠는가?

잔 들고 혼자 안자 먼 **뵈(세속적 감정과 대비되는 공간)**를 바라보니,

그리던 님이 오다 반가움이 이러허랴?(설의법 : 반가움이 이보다 크지 않다. 임이 오는 것보다도 자연을 즐기는 기쁨이 더 크다는 뜻)

말습도 우웁도 아녀도(자연물에 인격을 부여하여 표현함) 묻내 도하 흐노라.

▶ 3연 : 자연과 함께하는 삶의 즐거움

[현대어 해석]

술잔을 들고 혼자 앉아서 먼 산을 바라보니
그리워하던 임이 온다고 한들 반가움이 이보다 더하겠는가?
(산이) 말하거나 웃음을 짓지도 않지만, 나는 그를 몹시도 좋아하노라.

누고서 **三公(삼공)(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높은 벼슬을 뜻하는 말.)**도곤 낫다 흐더니 **만승(萬乘)(만 대의 수레. 황제의 지위를 뜻함.)**이 이만흐랴.

이제로 헤어든 **소부(巢父) 허유(許由)(중국의 대표적 은자(隱者) | 낙똥더라.(영탄법)**

아마도 님천 한흥(林泉閑興)(자연 속에서 살아가는 흥취, 자연친화적 정취를 직접 드러낸 말)을 비길 곳이 업세라.(영탄법)

▶ 4연 : 자연을 누리는 삶에 대한 자부심

[현대어 해석]

누군가가 (자연이) 삼공보다 낫다고 했지만, (내 생각에는) 만승천자인들 이만큼 좋겠는가?
이제 생각해 보니 소부와 허유가 영리하도다.
아마도 자연 속에서 노니는 즐거움은 비길 데가 없으리라.

내 성이 게으르더니(자신의 성품이 게으르다는 것은 세속을 벗어나고자 하는 마음을 지녔다는 뜻) 하늘이 아뢴실사.

인간 만사(人間萬事)를 혼 일도 아니 맞더(세속의 일에 관여하지 않고 있음)

다만당 드토리 업슨 강산(江山)(다툼이 잦은 세속과 대조되는 자연에서의 삶)을 덕희라 험시도다.

▶ 5연 : 세속과 멀어져 자연에서 지내는 만족감

[현대어 해석]

내 천성이 게으른 것을 하늘이 아셔서,
세상의 많은 일 가운데 하나도 맡기지 않으시고,
다만 다툼 상대가 없는 자연을 지키라고 하셨도다.

강산(江山)이 도타 혼돌 내 분(分)으로 누언느냐.(자연에서 한가롭게 사는 삶이 자신의 분수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고 여김)

님군 은혜(恩惠)를 이제 더욱 아노이다.(자연에서의 삶이 임금의 덕분임을 인식함)

아무리 갑고자 해야도 히올 일이 업세라(임금의 은혜를 갚을 수가 없음)

▶ 6연 : 임금의 은혜에 감사함

[현대어 해석]

강산이 좋다고 한들 나의 분수로 (이렇게 편안히) 누워 있겠는가.
이 모두가 임금의 은혜인 것을 이제 더욱 알겠도다.
이 은혜를 아무리 갚으려 해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 것도 없구나

▣ 핵심 정리

■ 갈래 : 평시조, 연시조(전 6수)

■ 성격 : 강호한정가, 자연친화적, 은일적

■ 주제 : 자연에 묻혀 사는 즐거움과 임금의 은혜

■ 특징

- ① 설의적인 표현을 활용하여 주제를 강조함
- ② 안빈낙도(安貧樂道)의 삶의 자세와 물아일체(物我一體)의 자연관이 드러남
- ③ 한문 투의 표현이 거의 없고 우리말의 묘미를 잘 살리고 있음
- ④ 자연과 속세의 대조적인 이미지를 형성하는 시어 사용
- ⑤ 안분지족에 대한 소망과 연군지정의 태도가 잘 나타나고 있다.
- ⑥ 인간사에 대한 비판적 관점을 통해 현실 도피적 태도를 드러냄

■ 핵심 정리

자연과 더불어 유유자적하며 살아가는 흥겨운 삶을 노래하고 있는 이 작품은 전체 6수로 된 연시조로, 병자호란 때(1642년, 56세) 왕을 호종(扈從, 임금이 탄 수레를 호위하여 따르던 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유배되었다가 풀려난 뒤 고향인 해남 금쇄동에 은거하면서 지은 것이다. 자연에 묻혀 지내는 한가롭고 흥겨운 심정을 읊으면서 임금의 은혜를 잊지 않는 것은 사대부 시조의 전통을 이어받은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우리말의 묘미를 잘 살리고 있다. <제1수>에는 혼란한 정계를 떠나 자연에서 은거하는 나를 어리석다고 비웃을지 모르지만 자신의 분수에 맞게 속세를 벗어나 자연과 함께 지내겠다는 현실 도피 사상이 드러난다. <제2수>에서는 부귀나 공명 같은 세속적인 가치를 부러워하지 않고 자연 속에서 안빈낙도하는 화자의 모습이 잘 드러나 있다. <제3수>에서는 먼 산이 어떤 벗이나 임보다도 더 좋다고 함으로써 자연과 혼연일체(渾然一體)가 되어 몰입된 화자의 모습을 보여 준다. <제4수>에서는 자연을 벗 삼아 지내는 생활이 다른 어떤 것보다도 비길 수 없다고 하면서 임천한흥에 대한 자부심을 보이고 있다. <제5수>에서는 자신의 성품이 나태하다고 말하고 인간 만사 중에 무엇 하나 제대로 이루지 못했다고 하며 겸양의 미덕을 보여 주고 있다. <제6수>에서는 강호 한정을 읊으면서 임금의 은혜를 잊지 않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는데, 이것은 맹사성의 '강호사시가'에 나오는 '亦君恩(역군은)이샅다'와 맥락을 같이 하는 관습적인 표현으로 조선 초기 사대부 시조의 전통을 이어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 각 수의 주제와 주요 소재

	주제	주요 소재
1수	안분지족의 삶	뿌집
2수	안빈낙도의 삶	보리밥, 풋노물
3수	자연을 벗 삼는 한정(閑情)	되
4수	강호한정의 삶	소부, 허유, 임천한흥
5수	자연귀의의 삶	강산
6수	성은에 대한 감사	임군 은혜

2021
수특

2021 수능특강 문학 2. 적용학습 고전시가 05 시조 두 편 분석

이 콘텐츠는 「콘텐츠산업 진흥법」,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본 콘텐츠의 무단 배포 시, 콘텐츠산업 진흥법과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지문 분석 (가)

님(화자가 기다리는 대상)이 오마 허거놀 저녁 밥을 일(일찍) 지어 먹고

▶ 초장 : 임이 온다는 소식에 급해진 마음

중문 나서 대문 나가 지방 우희 치드라 안자 이수로 가액허고(손으로 이마를 가리고) 오논가 가논가 건너산 바라보니(임이 오는 곳을 계속 바라봄) 거머희들 서 잇거놀(화자가 임을 본 것으로 착각함) 저야 님이로다 보선 버서 품에 품고 신 버서 손에 쥐고 곱비님의 님비곱비 천방지방 지방천방(음성 상징어 : 의태어) 존 디 마른 디 곱희지 말고 워령총창 건너가서 정(情)옛말(임과의 회포를 푸는 말) 허려 허고 곱눈을 흘깃 보니 상년(지난 해) 칠월 열사흔날 곱가 벅긴 주추리 삼대(화자가 임으로 착각한 대상) 솔 드리도 날 소겨다

▶ 중장 : 임을 향한 애타는 마음에서 비롯된 행동

모쳐라(중장의 첫 음보는 3음절) 밤일식망정 흥혀 낮이런들 늙 우일 번허과라.(실망감보다는 멧쩍음을 드러냄 - 사실시조 특유의 낙천성과 해학적)

▶ 종장 : 자신의 행동에 대한 겸연쩍음

현대어

임이 온다고 하여 저녁밥을 일찍 지어 먹고

중문을 나와 대문으로 나가 문지방 위에 올라가 앉아 손으로 이마를 가리고 오논가 가논가 건너편 산을 바라보니 검은 듯 흰 듯한 것이 서 있기에 저것이 임이로구나. 버선 벗어 품에 품고 신 벗어 손에 쥐고 옆치락뒤치락 허둥지둥 진 데 마른 데 가리지 않고 우당탕탕 건너가서 정이 있는 말 하려고 곱눈으로 흘깃 보니 작년 7월 3일에 값아 벅긴 주추리 삼대가 알뜰히도 나를 속였구나.

아서라 밤이기에 망정이지 행여 낮이었다면 남을 웃길 뻔했구나.

▣ 핵심 정리

■ 갈래 : 시조, 사실시조

■ 성격 : 해학적, 과장적

■ 제재 : 임이 온다는 소식

■ 주제 : 임을 애타게 기다리는 마음.

■ 특징

- ① 의성어와 의태어를 사용하여 행동을 과장하여 묘사함.
- ② 해학적 표현과 희극적 요소가 나타남

▣ 이해와 감상

이 작품은 그리운 임을 빨리 만나고 싶은 마음이 거침없는 행동으로 표현된 사실시조이다. 임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화자가 한 행동들은 사실적이고 해학적인데, 그 구체적인 행동은 종장에 잘 나타난

■ 이해와 감상

사랑하는 임을 여인 후, 안타깝고 절망적 심정을 감출 길 없는 것을 매에게 쫓기고 있는 까투리와 파선 직전의 절박한 상황 속의 도사공(선장)의 마음에다가 비유하여, 그 마음보다 화자의 마음이 더하다는 것으로 절망감을 표현하고 있다.

까투리와 도사공의 상황 또한 시련의 극치요, 절망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는데, 화자의 처지는 그것과도 비교할 수 없다고 말함으로써, 과장을 통한 강조의 효과를 얻어낸 작품이다.

이렇게 시조의 기본 율격에 제한을 받지 않고, 하고 싶은 말을 마음껏 늘어놓는 것이 사설시조인데, 그래서 산문적이고 서사시적인 성격을 띠게 된다. 사설시조에서 보편적인 것 중의 하나가 수다와 익살이다. 지은이는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상식을 곧잘 총동원하는데, 그 수다는 대개 익살로 나타나 우리 평민문학의 해학성이라는 한 흐름을 이루어 놓는다. 특히, 중장은 모든 상상할 수 있는 시련이 중첩된 극한적 상황을 설정하고 있어, 비장감·절박감과 더불어 그 수다스런 표현에 해학성까지 느낄 수 있다. 그리고 백척간두와 같은 상황을 고조시키기 위해 4음보의 율격조차 상당 부분 흔들어 버렸다.

■ 사설시조의 감정 표현 방식 - 감정의 절실함 > 형식의 아름다움

조선 후기 사설시조는 사대부들의 정제된 평시조와 달리 형식의 파격을 통해 절실한 감정을 표현하였다. 이는 형식의 아름다움보다는 하고 싶은 말의 내용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사설시조 작가들은 절실한 감정을 표현하기 위해 유사한 상황이나 대상을 열거하거나 반복하여 제시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작품의 중장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임을 잃은 자신의 슬픈 심정을 표현하기 위하여 매에게 쫓기는 까투리와 절망적 상황에 처한 뱃사공의 처지를 자세히 열거하고 있다.

■ 사설시조와 가사의 구조적 차이

사설시조는 초장·중장이 제한 없이 길며, 종장도 길어진 시조를 말한다. 그러다 보니 시조 특유의 운율인 3·4조 또는 4·4조의 4음보가 많이 깨지기도 한다. 그러나 각 장의 길이가 아무리 많이 길어졌다고 하더라도 사설시조는 가사와 달리 3장으로 끝맺는 형식적 구조를 지니고 있다. 즉, 초장에서 시상이 일어나고, 중장에서 그것을 이어받아 심화하고 확대하여, 종장에서 시상을 집약하며 마무리하는 것이다. 반면에 가사는 시조와 달라서 운문과 산문의 중간 형태인 교술 시가에 해당하며, 시조처럼 3장으로 끝맺는 구조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다.

2021
수특

2021 수능특강 문학 2. 적용학습 고전시가 06 사미인곡 정철 분석

이 콘텐츠는 「콘텐츠산업 진흥법」,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본 콘텐츠의 무단 배포 시, 콘텐츠산업 진흥법과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지문 분석

이 몸 삼기실 제 **님(옥황상제, 임금)**을 조차 삼기시니
헌싱(한평생) 연분(緣分)(인연)이며 **하늘 모를 일이런가(임과의 운명적 인연)**
 나 **흐나(오직)** 접어 잇고 님 **흐나** 날 괴시니
 이 막음 이 사랑 견줄 디 노여 업다
 평싱(平生)애 원(願)호요디 **흔디 네자 헛앗더니(화자의 소망)**
 늣거야 므스 일로 **외오 두고 그리논고(화자의 현재 처지)**
 엇그제 님을 뵈서 **광한던(廣寒殿)(옥황상제가 사는 궁궐, 한양)의** 올났더니
 그 더디 엇디호야 **하계(下界)(인간 세계, 속세, 적강 모티프)**에 내려오니
올 저괴 비슨 머리 헛들언디 삼 년(三年)일쇠(벼슬을 그만두고 시골에 내려온 지 삼 년이 되었음을 암시함)
연지분(臙脂粉)(여성 화자임을 암시) 잇네마는 놀 위호야 고이 홀고
 막음의 밋친 실음 텃텃(疊疊)이 빠져 이셔
 짓느니 한숨이오 디느니 눈물이라
 인싱(人生)은 유한(有限)흔디 시름도 그지업다
무심(無心)흔 세월(歲月)은 물 흐르듯 흐논고야(임과 이별한 후 시간이 빠르게 흘러가는 것을 물이 빠르게 흘러가는 모습에 비유함)
염낭(炎涼)이 새를 아라 가는 듯 고터 오니(계절의 변화)
 듯거니 보거니 늦길 일도 하도 할샤
동풍(東風)(계절적 배경, 봄)이 건듯 부러 적설(積雪)을 헤터 내니
 창(窓)밭기 심근 미화(梅花) 두세 가지 피여세라
 굿득 냉담(冷淡)흔디 **암향(暗香)(매화의 그윽한 향기, 임금에 대한 총정)은** 므스 일고
 황혼(黃昏)의 **돌(임금)**이 조차 벼마티 빗최니
 늦기논 듯 반기논 듯 님이신가 아니신가
 더 **미화(梅花)(화자의 분신, 화자의 정성과 사랑을 상징함)** 것거 내여 님 겨신 디 보내오져
 님이 너를 보고 엇더타 너기실고
 꽃 디고 새닙 나니 **녹음(綠陰)(계절적 배경, 여름)이** 솔렸는디
 [나위(羅幃) 적막(寂寞)호고 슈막(繡幕)이 뷔여 잇다
 부용(芙蓉)을 거더 노코 공작(孔雀)을 둘러 두니
 굿득 시름 한디 날은 엇디 기뻛던고](**임의 부재로 인한 쓸쓸한 분위기와 화자의 고독감을 드러냄**)
 원앙금(鴛鴦錦) 베히 노코 오식선(五色線) 플터 내여
 금자히견화이셔 **님의 옷(화자의 정성과 사랑을 상징함)** 지어 내니
 슈품(手品)은크니와 제도(制度)도 ㄴ줄시고
산호슈(珊瑚樹)(미화법, 지계를 미화함) 지계 우히 **백옥함(白玉函)(미화법, 함을 미화함)**의 다마 두고
 님의게 보내오려 님 겨신 디 바라보니
산(화자와 임 사이의 장애물)(山)인가 구름(화자와 임 사이의 장애물)인가 머흐도 머흘시고
천리만리(千里萬里)(화자와 임 사이의 거리감) 길히 뉘라셔 촛자갈고

니거든 여러 두고 날인가 반기실가
 흐릿밤 **서리 김의 기러기 우러 널 제**(계절적 배경, 가을, 감정이입법, 객관적 상관물)
위루(危樓)(화자의 위치)에 혼자 올라 슈정렴(水晶簾)을 거든마리
 동산(東山)의 **돌(임금)**이 나고 북극(北極)의 **별(임금)**이 되니
 남인가 반기니 눈물이 절로 난다
청광(淸光)(화자의 정성과 사랑을 상징함)을 띄워 내어 **봉황누(鳳凰樓)**(임금이 계신 곳)의 붓티고져
 누(樓) 우히 거러 두고 팔황(八荒)의 다 비취여
심산공곡(深山窮谷)(임금의 선정이 미치지 못한 곳, 작가가 있는 창평) 점낫ㄴ티 링그쇼셔
 건곤(乾坤)이 폐식(閉塞)하야 **백설(白雪)**(계절적 배경, 겨울)이 혼 비친 제
 사름은크니와 놀새도 곳처 잇다
소상(瀟湘) 남반(南畔)(정철의 은거지인 전남의 창평을 의미함)도 치오미 이러커든
옥누(玉樓) 고처(高處)(임금이 계시는 궁궐)야 더욱 날너 모습흐리
양춘(陽春)(화자의 정성과 사랑을 상징함)을 부쳐 내어 님 겨신 디 쏘이고져
 모침(茅簷) 비친 **히**(화자의 정성과 사랑을 상징함)를 **옥누(玉樓)**(임금이 계시는 궁궐)의 올리고져
홍상(紅裳)(붉은 치마, 여성 화자임을 암시함)을 니미초고 취슈(翠袖)를 반(半)만 거더
 일모(日暮) 슈둑(脩竹)의 **헬가림**(임에 대한 걱정)도 하도 할샤
 다룬 히 수이 디여 긴 밤을 고초 안자
 청등(靑燈) 거론 것티 던공후(鈿箏篋) 노하두고
 쏜의나 님을 보려 툃 밧고 비겨시니
 양금(鴛鴦)도 초도 출샤 이 밤은 언제 썰고
흐로도 열두 새 혼 돌도 설흔 날(임에 대한 그리움과 시름의 양을 강조하기 위한 표현)
 저근덧 싱각 마라 이 시름 닛자 하니
 막음의 밋쳐 이셔 골슈(骨髓)의 썰터시니
편작(扁鵲)이 열히 오다 이 병을 엷디히리(과장과 가정법으로 화자의 그리움과 시름을 표현)
 어와 내 병이야 이 님의 타시로다
 출하리 식어디여 **범나빅**(화자의 분신) 되오리라
 곳나모 가지마다 간 디 족족 안니다가
향(임에 대한 충성심) 므틴 놀애로 님의 오시 올므리라
님이야 날인 줄 모르셔도 내 님 조초려 흐노라(① 화자의 일편단심 강조 ② 작품 전체의 주제를 극적으로 표현)

▣ 현대어 해석

이 몸이 태어날 때에 입을 따라 태어나니, 한평생 함께 살아갈 인연이며 이 또한 하늘이 어찌 모를 일 이던가? 나는 오직 젊어 있고, 입은 오직 나를 사랑하시니, 이 마음과 사랑을 비교할 곳이 다시 없다.
 평생에 원하되 입과 함께 살아가려 하였더니, 늙어서야 무슨 일로 외따로 두고 그리워하는고? 옛그제 에는 입을 모시고 광한전에 올라 있었더니, 그동안에 어찌하여 속세에 내려왔느냐? 내려올 때에 빗은 머리가 헝클어진 지 3년일세. 연지와 분이 있네마는 누구를 위하여 곱게 단장할꼬? 마음에 맺힌 근심이 겹겹으로 쌓여 있어서 짓는 것이 한숨이요, 흐르는 것이 눈물이라. 인생은 한정이 있는데 근심은 한이 없다.
 무심한 세월은 물 흐르듯 흘러가는구나. 더웠다 서늘해졌다 하는 계절의 바뀜이 때를 알아 지나갔다가는 이내 다시 돌아오니, 듣거니 보거니 하는 가운데 느낄 일이 많기도 하구나.
 봄바람이 문득 불어 쌓인 눈을 헤쳐 내니, 창밖에 심은 매화가 두세 가지 피었구나. 가뜩이나 쌀쌀하

고 담담한데, 그윽히 풍겨오는 향기는 무슨 일이고? 황혼에 달이 따라와 베갯머리에 비치니, 느껴 우는 듯 반가워하는 듯하니, 임이신가 아니신가? 저 매화를 꺾어 내어 임계신 곳에 보내고 싶다. 그러면, 임이 너를 보고 어떻게 생각하실꼬?

꽃잎이 지고 새잎이 나니 녹음이 우거져 나무 그늘이 깔렸는데 비단 표장은 쓸쓸히 걸렸고, 수놓은 장막만이 드리워져 텅 비어 있다. 부용꽃 무늬가 있는 방장을 걷어놓고, 공작을 수놓은 병풍을 돌려 두니, 가뜩이나 근심 걱정이 많은데, 날을 어찌 길던고? 원앙새 무늬가 든 비단을 베워 놓고 오색실을 풀어내어 금으로 만든 자로 재어서 임의 옷을 만들어 내니, 숨씨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격식도 갖추었구나, 산호수로 만든 지게 위에 백옥으로 만든 함에 담아 얹혀 두고, 임에게 보내려고 임 계신 곳을 바라보니, 산인지 구름인지 험하기도 험하구나. 천만리나 되는 머나먼 길을 누가 찾아갈꼬? 가거든 열어 두고 나를 보신 듯이 반가워하실까?

하룻밤 사이의 서리 내릴 무렵에 기러기 울며 날아갈 때, 높다란 누각에 혼자 올라서 수정알로 만든 발을 걸으니, 동산에 달이 떠오르고 북극성이 보이므로, 임이신가 하여 반가워하니 눈물이 절로 난다. 저 맑은 달빛을 일으켜 내어 임이 계신 궁궐에 부쳐 보내고 싶다. 누각 위에 걸어두고 온 세상이 다 비추어, 깊은 산골짜기에도 대낮같이 환하게 만드소서

천지가 겨울의 추위에 얼어 생기가 막혀, 흰 눈이 일색으로 덮여 있을 때에, 사람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날짐승의 날아감도 끊어져 있다. 소상강 남쪽 둔덕도 추위가 이와 같거늘, 하물며 북쪽 임계신 곳이야 더욱 말해 무엇하랴? 따듯함 봄기운을 부치어 내어 임 계신 곳에 띄게 하고 싶다. 초가집 처마에 비친 따듯한 햇볕을 임 계신 궁궐에 올리고 싶다. 붉은 치마를 여미어 입고 푸른 소매를 반쯤 걷어 올려 해는 저물었는데 미미하고 길게 자란 대나무에 기대어서 이것 저것 생각함이 많구나. 짧은 겨울 해가 이내 넘어 가고 긴밤을 곳곳이 앉아, 청사초롱을 걸어둔 옆에 자개로 수놓은 공후를 놓아 두고, 굶에나 입을 보려고 턱을 바치고 기대어 있으니, 원앙새를 수놓은 이불이 차기도 차구나. 이 밤은 언제나 쉼꼬?

하루도 열 두 때, 한 달도 서른 날, 잠시라도 임 생각을 말아가지고 이 시름을 잊으려 하여도 마음 속에 맺혀 있어 뼈 속까지 사무쳤으니, 편작과 같은 명의가 여러 명이 오더라도 이 병을 어떻게 하랴. 아, 내 병이야 이 임의 탓이로다. 차라리 사라져 범나비가 되리라. 꽃나무 가지마다 간 데 족족 앉고 다니다가, 향기가 묻은 날개로 임의 옷에 옮으리라. 임께서야 나인 줄을 모르셔도 나는 임을 따르려 하노라.

▣ 핵심 정리

■ 갈래 : 서정 가사, 양반가사, 정격가사

■ 율격 : 3(4).4조의 4음보

■ 문체 : 운문체. 가사체

■ 구성 : 서사, 본사, 결사의 3단 구성. 본사는 춘원(春怨) 하원(夏怨) 추원(秋怨) 동원(冬怨)으로 구성

■ 성격 : 연군지사(戀君之詞)

■ 주제 : 연군지정(戀君之情)

▣ 이해와 감상

이 노래는 송강이 50세 되던 해에 조정에서 물러난 4년간 전라도 창평(昌平)으로 내려가 우거(寓居)하며 불우한 생활을 하고 있을 때 자신의 처지를 노래한 작품으로, 뛰어난 우리말 구사와 세련된 표현으로 속편인 '속미인곡'과 함께 가사 문학의 최고의 걸작으로 꼽히고 있다.

임금을 연모하는 내용의 이 노래는 서정적 자아의 목소리를 여성으로 택하여 더욱 절실한 마음을 수놓고 있다. 임금을 임으로 설정하고 있는 '사미인곡'은 멀리 고려 속요인 '정과정'과 맥을 같이 하고 있으며, 우리 시가의 전통인 부재(不在)하는 임에 대한 자기 희생적 사랑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는 '가시

리'와 '동동' 등에 이어져 있다고 할 수 있다.

임금을 사모하는 신하의 정성을, 한 여인이 그 남편을 생이별하고 그리워하는 연모의 정으로 바꾸어 표현하고 있는 작품이다. 이 작품은 전체의 내용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의 계절적 변화에 따라 사무친 그리움을 노래하고 있으며, 작품의 서두와 결말을 두고 있어서, 모두 다섯 단락으로 구분된다. 외로운 신하가 임금을 그리워하는 심경은 계절의 변화와 관계없이 한결같음을 볼 수 있다.

그리고, 국문으로 쓰여진 문학 작품을 경시하던 시대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작품은 '관동별곡', '속미인곡'과 더불어 역대 사대부들에게 큰 감명을 준 작품으로서 홍만종과 김만중 등 여러 사람에게서 극찬을 받았다. 제목인 '사미인(思美人)'은 중국 초나라 굴원(屈原)의 '이소(離騷)' 제 9장의 '사미인'과 같다. 그래서 임금께 제 뜻을 얻지 못하더라도 충성심만은 변함이 없어 죽어서도 스스로를 지킨다는 이소의 충군적(忠君的) 내용에도, 송강 자신의 처지를 맞추어 노래한 것이라고 보기도 한다.

우리 문학에서 연원을 찾는다면 고려 때의 '정과정'과 조선 성종 때의 조위(曹偉)의 유배가사 '만분가(萬憤歌)' 등을 들 수 있으나, 이러한 작품의 아작(亞作)이 아니라 송강(松江)다운 문학적 개성과 독창성을 발휘한 뛰어난 작품이다.

■ 여성 화자를 설정한 이유

이 작품의 작가는 임금을 향한 절실한 마음을 여성적 목소리로 표현하였다. 임금을 그리워하는 신하가 사연을 토로하는 방식이 아니라, 임의 사랑을 받지 못한 여성이 그 애절한 심정을 하소연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는 것이다. 임금과 신하의 관계는 특수한 것임에 비해 남성과 여성의 애정 관계는 일반적이기 때문에, 임을 그리워하는 여성이 하소연하는 방식은 독자들의 공감을 얻는 데 효과적이다. 즉, 자신의 특수한 사연을 인간에게 일반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로 전환하여 표현함으로써 폭넓은 공감대를 얻는 것이며, 이러한 여성적 어조는 우리 문학에서 일종의 관습적인 표현 방식이라 할 수 있다.

■ 계절의 순환에 따른 시상 전개

이 작품은 화자의 시름과 임에 대한 연모의 정을 계절의 변화에 따라 전개하였다. 본사를 봄·여름·가을·겨울로 나누어 계절에 따른 자연과 생활의 변화를 그리면서, 그 속에서 화자가 느끼는 임에 대한 그리움과 충정을 구체적인 수사로 엮은 솜씨가 탁월하다. 즉, 임과 이별한 후의 그리움을 한 여인의 절절한 애정으로 표현함으로써 신하로서의 연군지정을 함축하고 있으며, 이별한 임에 대한 그리움과 시름을 계절에 따라 이미지로 형상화하며 시상을 전개하였다.

■ 화자의 분신, 범나빅

서사와 본사에서 임을 향한 간절한 그리움, 임에 대한 걱정과 임의 곁에서 임을 다시 모시고 싶은 소망 등을 토로한 이후에, 결사에 이르러서 그러한 소망이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차라리 죽어서 '범나빅'이 되겠다는 화자의 결연한 태도가 드러난다. 즉, 임을 향한 지극한 그리움 때문에 죽음을 매개로 하여 생전에 이루지 못한 소망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다. 따라서 '범나빅'은 죽음을 불사하고서라도 임을 향한 일편단심을 보이는 화자의 분신이라 할 수 있다.

2021
수특

2021 수능특강 문학 2. 적용학습 고전시가 07 만인사 안도환 분석

이 콘텐츠는 「콘텐츠산업 진흥법」,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본 콘텐츠의 무단 배포 시, 콘텐츠산업 진흥법과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지문 분석

아마도 할 일 없어 생애를 생각하고
[고기 낚기(삶의 모습을 보여 주는 일상과 관련된 시어) 하자 하니 물머리를 어찌하고
나무 베기(삶의 모습을 보여 주는 일상과 관련된 시어) 하자 하니 힘 모자라 어찌하며
자리 치기 신 삼기(삶의 모습을 보여 주는 일상과 관련된 시어)는 모르거든 어찌하리](집주인의 팔세로
 인해 스스로 먹거리를 마련하기 위한 방안을 고민하는 화자의 모습)
 어와 할 일 없다 동냥이나 하여 보자(청유형 어미를 활용)
[탈망건 갓 숙이고 흘중치막 띠 끄르고
 총만 남은 헌 짚신에 세살부채 차면(遮面)하고
 남초 없는 빈 담뱃대 소일(消日) 조로 가지고서](초라하고 볼품없는 행색으로 동냥을 나서는 화자의 모
 습)
비속비속(어떠한 일에 대하여 탐탐히 여기지 아니하고 잇따라 따로 떨어져 행동하는 모양) 걷는 걸음걸
 음마다 눈물 난다
 세상 인사 꿈이로다 내 일 더욱 꿈이로다
옛그제는 부귀자(富貴者)오 오늘 아침 빈천자(貧賤者)라(대비적인 시어를 통해 유배를 온 자신의 처지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화자의 인식을 드러냄)
부귀자 꿈이런가 빈천자 꿈이런가(대구법)
 장주 호접 황홀하니 어느 것이 정 꿈이고
한단치보(邯鄲稚步)(함부로 자기 본분을 버리고 남의 행위를 따라 하면 두 가지 모두 잃는다는 것을 이
 르는 말) 꿈인가 남양초려(‘남양’은 중국 형주의 지명이며 ‘초려’는 ‘짚이나 갈대 따위로 지붕을 인 집’을
 의미함. 남양에서 제갈량은 초려를 짓고 자신의 능력을 펼칠 기회를 잡기 위해 참을성 있게 기다렸음)
 큰 꿈인가
화서몽(옛날 황제가 낮잠을 자면서 화서라는 무위자연의 나라를 꾸는 꿈, 일장춘몽과 뜻이 통함) 칠원몽에
남가일몽(남쪽 가지에서의 꿈이란 뜻으로, 덧없는 꿈이나 한때의 헛된 부귀영화를 이르는 말) 깨고 나서
몽중 흉사(夢中凶事)(꿈속의 흉한 일, 꿈속에서 흉한 일을 당하면 현실에서 좋은 일이 일어난다 함) 이
 러하니 새벽 대길(大吉)(크게 좋은 일이 일어남) 하오리다
 가난한 집 지내치고 넉넉한 집 몇 집이고
 사립문을 드자 할가(들어갈까) 마당에를 섰자 하랴(서 있을까)
 철없는 어린아해 소 같은 젊은 계집
손가락질 가라치며 귀양다리(귀양객을 낮춰서 놀리는 호칭) 온다 하니(화자를 향한 조롱과 멸시, 화자가
 과거 서술에서의 생활을 떠올리게 되는 계기가 됨)
 어와 고이하다 다리 지칭 고이하다
 구름다리 징검다리 돌다리 토다리라
 춘정월 십오야(夜) 상원야(음력 정월 보름날 밤) 밝은 달에
장안시상(서울 장안 거리의) 열두 다리 다리마다 바람 불어
옥호 금준(옥 술단지과 금 술잔)은 다리다리 배반(杯盤)(술상에 차려 놓은 그릇, 또는 거기에 담긴 음식,
 혹은 흥취 있게 노는 잔치)이요

적성 가곡(춘향가 속에 들어 있는 노래 적성가)은 다리다리 풍류로다

윗다리 아랫다리 석은 다리 헛다리
 철물(鐵物)다리 판자(板子)다리 두 다리 돌아들어
 중촌(中村)을 올라 광통다리 굽은 다리 수표(水標)다리
 효경(孝經)다리 마전(馬塵)다리 아량 위 꺾다리라
 도로 올라 중학(中學)다리 다리 내려 향다리요
 동대문(東大門) 안 첫 다리며 서대문 안 학다리
 남대문 안 수각다리 모든 다리 밝은 다리

이 다리 저 다리 금시초문 귀양다리

수종다리 습다린가 천생이 병신인가

아마도 이 다리는 실족하여 병든 다리(동음이의어를 활용하여 자신의 처지를 희화화하여 제시함)

두 손길 느려치면 다리에 가까오니
 손과 다리 머다 한들(멀다고 한들) 그 사이 얼마치리
 한 층을 조금 높여 손이라나 하여 주렴(손님이라고나 불러주렴)
 부끄럼이 묻저 나니 동냥 말이 나오더나

장가락(장타령, 동냥하는 사람이 장이나 길거리로 돌아다니면서 구걸을 할 때 부르는 노래) 입에 물고
 아니 가는 헛기침에

허리를 굽힐 제는 공손한 인사로다

내 허리 가이없어 비부(婢夫)에게 절이로다

내 인사 차서(次序) 없이 종에게 존대로다(자신보다 신분이 낮은 사람들에게 절을 하고 존대를 해야 하는 처지에 대한 한탄)

혼잣말로 중중하니(중얼중얼하니) 주린 중(굶주린 스님) 들어온가
 그 집사람 눈치 알고(눈치로 알아차리고) 보리 한 말 떠서 주며
 가져가오 불상하고 적객(謫客) 동냥 예사오니(특별한 일이 아니고 예사로 있는 일이니)
 당면하여 받을 제는 마지못한 치사로다

그렇저런 얻은 보리 들고 가기 어려우리

어느 노비 수운(輸運)하리(의문의 방식을 활용하여 도와줄 사람이 없어 자신이 등짐을 져야만 하는 처지를 한탄하는 화자의 모습을 제시함) 아모려나 저 보리라

갓은 숙여 지려니와 흘중치막 어찌할고
 주변이 으뜸이라 변통(형편과 경우에 따라서 일을 융통성 있게 잘 처리함)을 아니하라
 넓은 소매 구기질러 품속으로 넣고 보니

긴등(길게 뻗어 나간 언덕의 등성이) 거리 제법이라 하 괴이치 아니하다

아마도 꿈이로다 일마다 꿈이로다

동냥도 꿈이로다 등짐도 꿈이로다(대구적 표현을 통해 유배지에서 동냥을 하는 자신의 모습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화자의 정서를 드러냄)

뒤에서 당기는 듯 앞에서 미움는 듯
 아모리 굽히려도 자빠지니 어찌하리

머지 아닌(멀지 않은) 주인집을 천신만고 겨우 오니

존전(尊前)의 출입(出入)인가 한출첨배 하는고야
 저 주인 거동 보소 코웃음 비웃으며
 양반도 할 일 없네 동냥도 하시었고
 귀인도 속절없네 등짐도 지시었고

밥 싹 노릇(밥 먹을 자격이 있는 행동) 하오시니 저녁밥 많이 먹소

네 웃음도 듣기 싫고 많은 밥도 먹기 싫다

동냥도 한 번이지 **빌긴들(양식을 빌기 인들)** **매양 하랴(항상 하랴, 늘 하랴)**

평생에 처음이요 다시 못할 일이로다

차라리 굶을진정 이 노릇은 못하리라

무삼 일을 하잔 말고 신 삼기나 하자 하고

짚 한 단 추려다가 신날부터 꼬아 보니

조희 노(종이로 가늘게 비비거나 꼬아 만든 줄)도 모르거든 샷기 꼬기 어이하리

다만 한 발 다 못 꼬아 손바닥이 부르트니

할 리 없어 내어 놓고 긴 삼대를 베껴 내어

자리 노를 배와 꼬니 천수만한 이내 마음

부칠 데(불일 데가) 전혀 없어 노 꼬기에 부치었다

- 안도환, '만언사(萬言詞)'

▣ 현대어 해석

아무것도 할 일이 없어 생계를 생각하고 물고기 낚기를 하자하니 배 멀미를 어찌하고, 나무를 베자하니 힘이 모자라 어찌하며, 돛자리치기와 신을 삼는 일은 할 줄 모르니 어찌하리. 아아! 할 일 없다. 동냥이나 하여보자. 망건을 벗고 갓을 숙여 쓰고 홀 증치막의 띠를 끄르고 총만 남은 헌 짚신에 가는살 부채로 얼굴을 가리고 담뱃잎도 없는 빈 담뱃대를 심심풀이로 가지고서 비스듬히 걷는 걸음에 걸음마다 눈물이 난다.

세상의 인간사는 모두 꿈이로다.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일도 더욱 꿈이로다. 옛그제는 부귀한 사람이었고 오늘 아침엔 빈천한 사람이라. 부귀했던 과거가 꿈이던가, 빈천한 오늘이 꿈이던가. 장자가 호랑나비 되는 꿈이 황홀하니 어느 것이 진정 꿈인가. 한단지몽이 꿈인가 남양에서 밭 갈던 삶이 큰 꿈인가. 화서몽, 칠원몽에 남가일몽 깨고 나서 꿈속에서 보이던 흥한 일이 이려하니 현실로 돌아온 새벽에는 크게 길할 것이로다. 가난한 집은 그냥 지나고 넉넉하게 잘 사는 집은 몇 집이나 되는가. 사립문 안에 들어가자고 할까 마당에 서겠다고 할 것인가.

철없는 어린 아이와 소 같은 젊은 계집이 손가락질 가리키며 귀양다리 온다고 하니 아아! 괴이(怪異)하다. 다리라고 칭하는 것이 괴이하다. 구름다리, 징검다리, 흙다리라. 정월 15일 보름날 밝은 달에 서울 장안의 열 두 다리 다리마다 바람 불어 옥 술단지애 금 술잔마다 다리다리 배반(杯盤)이요, 적성가곡은 다리다리 풍류로다. 옷다리, 아랫다리, 썩은 다리, 헛다리, 철물로 만든 다리, 판자로 만든 다리, 사람의 두 다리로 돌아들어 중촌을 올라가 광통다리, 굽은 다리, 수표다리, 효경다리, 마전다리, 아랑 위의 걸다리라. 도로 올라가 중학다리, 다리를 내려오니 향다리요, 동대문 안 첫다리며, 서대문 안 학다리, 남대문 안의 수각다리, 모든 다리를 밟고 온 다리, 이 다리 저 다리 다 들어봤지만 귀향다리는 금시초문이라. 다리가 부어올라 점점 퍼지는 수종다리이니 습다리인가, 천생이 병신인가?

아마도 이 다리는 실족(失足)하여 병든 다리일 것이니, 두 손길을 늘어뜨리면 다리에 가까울 것이니 손과 다리 사이가 멀다 한들 그 사이가 얼마나 멀 것인가. 다리라고 부르지 말고 한 층을 조금 높여 손이라고 불러주렴. 부끄럼이 먼저 나니 동냥을 달라는 말이 나오더냐. 장타령을 차마 내뱉지도 못하고 잘 나오지도 않는 헛기침에 허리를 굽힐 때는 공손하게 인사할 뿐이로다. 내 허리가 가엾어서 비천한 것들에게 절을 하게 되도다. 나의 인사는 위아래가 없이 종에게도 존대를 하는구나.

혼자말로 중얼중얼하니 굶주린 종이 들어왔는가. 그 집 사람이 눈치로 알아차리고 보리 한 말 떠서 주며 가져가시오, 불쌍한 귀양객들의 동냥질은 예사로 있는 일이라오. 막상 닥쳐서 동냥을 받을 때는 마

지못해 치사하더라. 그럭저럭 얻은 보리를 들고 가기가 어려우니 어느 노비가 있어 운반하리. 아무튼 한 번 짐을 저보리라. 갓은 숙여지지만 입은 홀 중치막은 거추장스러워 어이할꼬.

주변머리 좋은 것이 으뜸이라. 번통을 아니 할 것인가. 넓은 소미는 구겨 질러서 품속으로 넣고 보니 긴 언덕의 거리가 제법 되나 너무 괴이하게 보이지는 않구나. 아마도 꿈이로다. 하는 일마다 모두 꿈이로다. 동냥도 꿈이로다. 등짐도 꿈이로다. 뒤에서 당기는 듯, 앞에서 미는 듯, 아무리 허리를 굽히려 해도 자빠지니 어찌하리. 멀지도 않은 주인집을 천신만고 끝에 겨우 오니 높은 상전(上典)집에 출입을 하는 것같이 등에서 땀이 나오는구나. 저 주인의 거동을 보소. 코웃음 치며 비웃으며 “양반도 참 할 일이 없네. 동냥질도 하시었으니 귀한손님이라도 어쩔 수 없나 보네. 등짐까지 지셨고 밥값을 하셨으니 저녁 밥이나 많이 먹소.”

네 웃음도 듣기 싫고 많은 밥도 먹기 싫다. 동냥질 하는 것도 한 번이지 빌어먹는 일을 항상 할 것인가. 평생에 처음이요, 다시는 못할 일이다. 차라리 굶을지언정 이 노릇은 못하겠다. 그러면 무슨 일을 하잔 말인가. 짚신 삼기나 하자하고 짚 한 단을 추려다가 신날부터 꼬아보니 종이 줄도 모르는데 새끼 꼬기를 어찌하리. 다만 한 발을 다 못 꼬고 손가락이 부르르니 하릴없이 그만 두고 긴 삼대를 베껴내어 돗자리 줄을 배워서 꼬니 근심 많고 한이 많은 이 내 마음 붙일 데가 전혀 없어 노를 꼬는 일에 붙었다.

▣ 핵심 정리

■ 갈래 : 유배 가사

■ 연대 : 조선 정조

■ 작가 : 안도환

■ 형식 : 전편(前篇) 2,916구, 속편(續篇) 594구로 된 장편가사

■ 주제 : 유배지에서 느끼는 서러움과 신세 한탄

■ 의의 : 김진형이 지은 장편 유배 가사인 '북천가'와 더불어 쌍벽을 이룸.

■ 구성 : 만언사라는 주가사와 만언답사, 사부모, 사처, 사자, 사백부로 구성된 작품이다. 2음보 1구로 계산하여 총 3,500여구에 달한다. 음수율은 3·4조와 4·4조가 주조를 이루며, 2·4조와 2·3조 등도 보인다.

■ 특징 : 유배 생활에서 겪었던 고생담을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그 괴로움을 탄식조로 표현하고 있으며, 유배 생활에서 동냥을 하는 대목에서는 다리타령을 길게 늘어놓는 등 하층민이나 부녀자들이 쓰직한 표현과 정서가 많아 신세한탄의 사실이 사대부 가사와는 다르게 생생하고 절절하다. 고난과 궁핍의 절절한 묘사가 여성 취향에 맞아떨어져 서울의 궁녀들 사이에 널리 읽혔다 하며 '청년회심곡(靑年悔心曲)'이라는 소설에 삽입되기도 했다. 그리고 '만언사답(귀양살이의 괴로움으로 죽으려는 사람을 이웃 사람이 위로하고 타이르는 내용)'이라는 제목의 작은 글이 첨가되어 있는 특이한 구성 방식을 취하고 있음.

■ 먼저 추자도로 귀양온 신세를 한탄하고 지금까지의 생활을 회상한다. 죽은 아이로 태어나 1주일 만에 살아나서 11세에 부모를 여의고 외가에서 살다가 어진 계모를 만나 지극히 효행하고, 결혼해 잠시 행락에 빠졌으나 마음을 다잡고 공부하여 벼슬도 하고 부귀롭게 살다가 죄를 입고 귀양오게 된 일을 노래했다. 부모 친척과 이별하고 경기도·충청도·전라도를 거쳐 추자도에 이르는 노정을 쓴 다음, 유배지에서 괴롭고 힘든 생활을 늘어놓았는데, 이 부분이 이 작품의 핵심이다. 추자도에 도착해 거처할 집을 구하려 했으나 문전박대를 당하고 남의 집 처마 밑에서 자고 거친 음식을 먹거나 굶기도 하면서 남쪽지방의 찌는 더위에 고생한다. 동네 사람이 일하지 않고 공밥을 먹는다고 타박하자, 고약한 인심을 탓하다가 일을 하려고 하나 경험이 없는 일이라 결국 동냥을 하면서 자신의 신세를 한탄한다. 허름한 곳에서 지내며 겨울에는 추위에 떨고, 옷 1벌로 4계절을 지냈다는 등 궁박한 사정을 늘어놓기도 한다. 처음에

는 자신을 보고 짓던 개가 지금은 꼬리를 치니 귀양살이가 오래되었음을 알고 옛 시절을 그리워하며 유배에서 풀려나기를 빈다.

▣ 이해와 감상

유배 가사의 하나로, 조선 정조 때 대전별감(大殿別監)이던 안조환(安肇煥)이 지은 가사(歌辭)로 '사고향(思故鄉)'이라고도 한다. 이본으로 필사본 3종이 전하며, 필사본에 따라 작자 안조환이 안도환으로 기록되어 있기도 하다. 작자가 34세 때에 추자도(楸子島)로 유배된 사건을 작품의 배경으로 하고 있다.

〈만언사〉라는 주가사(主歌詞)와 〈만언답사 謄言答詞〉·〈사부모 思父母〉·〈사처 思妻〉·〈사자 思子〉·〈사백부 思伯父〉로 구성된 작품이다. 내용은 추자도로 유배당한 신세 한탄과 함께 자신의 과거사를 회상한다. 작자가 주색에 빠져서 국고금을 축낸 죄로 34세 때 추자도(楸子島)에 귀양가서 굶주림과 추위에 시달리며 지은 죄를 눈물로 회개하는 내용을 애절하게 읊었다. 이 작품이 서울에 전하자 궁녀들이 읽고 눈물을 흘리지 않는 이가 없었고, 이로 인하여 이것이 임금에게 알려져 유배에서 풀려났다는 일화도 있다.

조위(曹偉)의 '만분가(萬憤歌)', 김진형(金鎭衡)의 '북천가(北遷歌)' 등과 아울러 유배문학(流配文學)에 속하는 가사이나, 다른 가사와는 달리 자신의 체험과 감정을 고스란히 표백(表白)하여 놓은 사실적인 작품이라는 점에서 재평가된다. 전편(前篇) 2,916구, 속편(續篇) 594구로 된 장편가사로, 3종의 필사본이 전하는데, 모두 한글로 쓰여졌다. 김진형이 지은 장편 유배 가사인 '북천가'와 더불어 쌍벽을 이루었으며, '만언사'의 경우 현실 세계의 질곡에 대한 발분적 정서가 정론적인 차원에서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만, 유배 생활 자체에서 느끼는 고통과 분노의 차원에서는 전형적인 형태로 형상화되고 있다. 연군적 서정성이 약화된 반면 유배 생활에서 느끼는 슬픔과 분노가 보다 전형적인 형태로 형상화된 것이다.

이 작품은 유배 문학에 속하는 다른 가사들에 비해 자신의 체험과 감정을 사실적으로 밝혀 놓았다는 점에서 매우 특징적이다. 이 작품의 작가는 당쟁과는 관계없이 공무상의 개인적인 비리로 유배되었기 때문에 유배 생활의 억울함을 주장하지 않았으며, 임금에 대한 그리움이나 충성심이 작품의 지배적 정서로 나타나지도 않는다. 다만 유배지에서의 궁핍한 생활상과 그 속에서 느끼는 고통을 사실적으로 드러내는 데에 치중하고 있을 뿐이다. 그래서 어조 면에서 양반들의 점잖은 또는 의연한 태도 같은 것이 눈에 띄지 않으며, 절절한 신세 한탄에서 회한의 어조를 강하게 느낄 수 있다. 즉, 허식과 과장으로 자기를 변호하는 성격이 강한 유배 문학의 범주에서 벗어나 평민적인 사실성을 보이는 데 근접한 작품이다.

2021
수특

2021 수능특강 문학 2. 적용학습 고전시가 08 갑민가 작자미상 분석

이 콘텐츠는 「콘텐츠산업 진흥법」,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본 콘텐츠의 무단 배포 시, 콘텐츠산업 진흥법과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지문 분석

어저어저(감탄사, 영탄적 어조) 저기 가는 저 사람아
 네 행색 보아하니 군사 도망(軍士逃亡) 네로고나(갑민의 모습만 보고도 생원이 '군사 도망'이라고 표현하는 것으로 볼 때, 갑민과 같은 상황이 당시에 흔한 일이었음을 알 수 있음)
 허리 위로 불작시면 베적삼이 깃만 남고
 허리 아래 굽어보니 현 잠방이 노닥노닥
 곱장할미 앞에 가고 전태발(늙은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 뒤에 간다
 십 리 길을 하루 가니 몇 리 가서 옆치지리(하루에 십 리 정도 이동하는 갑민 가족의 상황으로 보아 앞으로의 여정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생원의 추측)
 내 고을의 양반(兩班) 사람 타도타관(他道他官)(자신이 속한 곳이 아닌 다른 도와 다른 고을) 옮겨 살면 천(賤)히 되기 예사거든 본토(本土) 군정(軍丁)(군적이 있는 지방의 장정, 공역의 종사하는 장정) 싫다 하고
 자네 또한 도망하면 한 나라의 한 인심에
 근본 숨겨 살려 한들 어데 간들 면할손가
 차라리 네 살던 곳에 아무렇게 뿌리박아
 칠팔월에 삼을 캐고 구시월에 둔피(獬皮)(담피의 가죽) 잡아
 공채(公債)(국가에 내는 세금) 신역(身役)(몸으로 치르는 노역) 갚은 후에 그 나머지 두었다가
 함흥 북청 흥원(넓고 큰 들판) 장사 돌아들어 몰래 팔 때
 후한 값 받고 팔아 내어 살기 좋은 넓은 곳에
 집과 논밭 다시 사고 살림 도구 장만하여
 부모처자 보전하고 새 즐거움 누리려문
 어와 생원(소과에 합격하여 대과에 응시할 자격이 주어진 사람)인지 초관(哨官)(하급 무관에 직위에 있는 사람)인지
 그대 말씀 그만두고 이내 말씀 들어 보소(화자의 전환)
 이내 또한 갑민(甲民)이라 이 땅에서 성장하니 이때 일을 모를소냐(설의법)
 우리 조상 남중 양반(南中兩班) 진사 급제 계속하여
 금장 옥패 빗기 차고 시종신(侍從臣)(임금 곁에서 문학으로 보필하던 벼슬아치)을 다니다가
 남의 시기 참소 입어 전가사변(全家徙邊)(조선 시대에, 죄인을 그 가족과 함께 평안북도, 함경북도와 같은 변방으로 옮겨 살게 하던 일)한 후에
 극변방(極邊方)인 이 땅(갑산의 지리적 특성을 알 수 있음)에서 칠팔 대를 살아오니
 조상 덕에 하는 일이 읍중(邑中) 구실 첫째로다(조상 덕분에 갑민이 읍중에서 양반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했음을 알 수 있음.)
 들어가면 좌수 별감 나가서는 풍헌 감관(대구법)
 유사(有司) 장의(掌儀)(마을의 유생들이 말았던 향교의 직책) 채지 나면 체면 보아 사양터니
 애슬프다(갑민의 감정) 내 시절에 원수인(怨讐人)의 모해(謀害)(나쁜 꾀를 써서 남을 어려움에 빠뜨림)로 써
 군사 강정(降定)(예전에, 무관에 대한 징벌의 하나를 이르던 말) 되단 말가 내 한 몸이 혈어나니

좌우 전후 많은 가족 차차 **충군(充軍)**(조선 시대에, 죄를 벌로서 군역에 복무하게 하던 제도, 대개 수군이나 국경을 수비하는 군졸에 해당함) 되거고야

누대봉사(累代奉祀)(여러 대의 조상의 제사를 받듦) 이내 몸은 하릴없이 매어 있고

시름없는 친족들은 자취 없이 도망하고

여러 사람 모든 신역 내 한 몸에 모두 무니

한 몸 신역 삼 냥 오 전(三兩五錢) 돈피 두 장 **의법(依法)**(정해진 법)이라

열두 사람 없는 구실 합쳐 보면 사십육 냥(四十六兩)

해마다 맞춰 무니 **석송(중국 진나라 때의 부자 이름)**인들 **당할소냐(설의법)**

약간 농사 전폐하고 삼을 캐러 입산(入山)하여

허항령(虛項嶺) 보태산(寶泰山)을 돌고 돌아 찾아보니

인삼 싹은 전혀 없고 오가없이 날 속인다

하릴없이 헛되이 와서 팔구월 고추바람

안고 돌아 입산하여 **돈피 산행(獫皮山行) 하려 하고**(어떻게든 신역을 감당해 보려는 갑민의 태도가 드러나는 부분)

백두산 등에 지고 강 아래로 내려가서

싸리 꺾어 누대 치고 앞갈나무로 모닥불 놓고

하나님께 **축수(祝手)**(오래 살기를 빎)하며 산신(山神)님께 **발원(發願)**(신이나 부처에게 소원을 빎)하여

물채줄을 갖춰 꽃고 사망 일기 원하되

내 정성이 부족한지 사망 기획 아니 불네

(중략)

나라님(나라의 주인이라는 뜻으로 '임금'을 달리 이르는 말)께 아뢰자니 구중천문(九重天門) 멀어 있고

요순(堯舜) 같은 우리 성주(聖主)(직유법) 일월(日月)같이 밝으신들

불점성화(不沾聖化) 이 극변(極邊)에 **복분하(覆盆下)**(엷은 동이, 엷어둔 동이는 속이 어둡다는 뜻으로 '근거 없는 죄를 뒤집어씌'를 비유하여 이르는 말)라 비첼소냐

그대(청자) 또한 내 말 듣소 타관 소식(他官消息) 들어 보게

북청 부사(北靑府使) 뉘실런고 성명(姓名)은 잠간 잊었네

많은 군정 안보(安保)하고 백골 도망(白骨逃亡) 원통함 풀고

각대 초관(各隊哨官) 여러 신역 대소민호(大小民戶) 나눠 걷으니

많으면 닷 돈 푼수 적으면 서 돈이라

인읍(隣邑) 백성 이 말 듣고 **남부여대(男負女戴)**(남자는 짐을 지고 여자는 짐을 인다는 뜻으로, 가난한 사람들이 살 곳을 찾아 이리저리 떠돌아다님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모여드니

군정 허오(軍丁虛伍) 없어지고 민호(民戶) 점점 늘어 간다(청으로 이주하는 백성들이 늘어나 군역의 부담이 점점 줄어든다는 의미임)

나도 또한 이 말 듣고 우리 고을 군정 신역

북청 일례(北靑一例) 하여지라 영문(營門) 의송(議送) 정(呈)탄 말가

본읍(本邑) 말겨 제사(題辭) 말아 본 관아에 부치온즉

불문시비(不問是非) 올려 매고 **형문(刑問)**(형장으로 죄인을 때림) 한 번 맞았던 말가

천신만고(千辛萬苦)(온갖 고생을 하고 애를 씌) 놓여나서 **고향 생애 다 떨치고**(갑산에서의 삶에 미련이 없어졌음을 알 수 있음)

이웃 친구 하직(下直) 없이 **부로휴유(扶老携幼)**(노인은 부축하고 어린이는 보살핌) 한밤중에

후치령 길 비켜 두고 금창령(金昌嶺)을 허위 넘어

단천(端川) 땅을 바로 지나 성대산(聖大山)을 넘어서면

북청 땅이 그 아닌가 **거처호부(居處好否)**(좋고 나쁜 거처) 다 떨치고
 모든 가족(家屬) 안보하고 신역 없는 군사 되세
 내 곧 신역 이러하면 **이친기묘(離親棄墓)**(친족들과 이별하고 조상의 묘는 버림) 하올소나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나님께 비나이다(aaba구조)
 충군애민(忠君愛民) 북청 원님 우리 고을 **빌이시면**(‘빌려주시면’으로 추정됨)
 군정도탄(軍丁塗炭) 그러다가 임금님께 올리리라
 그대 또한 내년 이때 처자 동생 거느리고
 이 **영로(嶺路)**(고개를 넘어 오르내리도록 나 있는 길)로 접어들 때 그때 내 말 깨치리라
 내 심중에 있는 말씀 횡설수설하려 하면
 내일 이때 다 지나도 반나마 모자라리
일모총총(日暮匆匆)(바쁜 모양) 갈 길 머니 하직하고 가노매라

- 작자 미상, '갑민가(甲民歌)'

▣ 현대어 해석

아아, 저기 가는 저 사람아
 네 행색을 보아 나니 군사도망(하는 이가) 너로구나.
 (너의) 허리 위를 보면 베적삼이 깃만 남아 있고
 허리 아래를 굽어보니 험 잠방이가 노닥노닥하구나.
 허리 굽은 노모는 앞에 가고 다리를 절뚝거리는 사람은 뒤에 간다.
 십 리 길을 하루에 가니 몇 리 가서 엎쳐지리.
 내 고을의 양반인 사람도 다른 지역으로 옮겨 가서 살면
 천하게 되는 것이 보통 있는 일인데 고향의 군역 싫다 하고
 자네 또한 도망하면 한 나라의 한 인심에
 근본을 숨겨서 살려고 한들 (네가) 어디 가서 (천한 신세를) 면할 것인가. (천한 신세를 면하기 어려운 것이다.)
 차라리 네가(원래) 살던 곳(고향인 갑산)에 아무렇게 뿌리박아
 칠팔월에는 삼을 캐고, 구시월에는 돈피를 잡아
 공채 신역을 갚은 후에 그 나머지(남은 삼과 돈피)를 두었다가
 함흥, 북청, 홍원에 장사를 돌아들어 몰래 팔아서
 후한 값을 받고 팔아서 살기 좋은 넓은 곳에
 집과 논밭을 다시 사고 살림 도구를 장만하여
 부모와 처자식을 보전하고 새 즐거움을 누리렴.
 아, 생원인지 초관인지
 그대 말씀을 그만두고 이내 말씀을 들어 보오.
 나도 또한 갑민이라 이 땅에서 성장했는데 이때의 일을 모를쏘냐.
 우리 조상이 남중 양반이라 진사 급제를 계속하여
 금장 옥패를 비스듬히 차고 시종신(임금을 가까이 모시는 신하)으로 다니다가
 남의 시기와 참소를 입어 전가사변한 후에
 나라에서 가장 변방인 이 땅(갑산)에 칠팔 대를 살아오니,
 조상 덕에 하는 일이 읍중 구실 첫째로다.
 들어가면 좌수 별감, 나가서는 풍헌 감관.
 유사 장의 채지 나면 체면 보아서 사양했는데

애슬프다. 내 시절에 원수의 모래를 받아
 군사 장정 되었던 말인가. 내 한 몸이 혈어나니
 좌우 전후 많은 가족들이 차차 총군이 되었구나.
 여러 대의 조산의 제사를 받들 이내 몸은 할 일 없이 매어 있고
 시름없는 친족들은 자취 없이 도망가고
 여러 사람의 모든 신역을 내 한 몸에 모두 물게 하니
 한 사람의 신역의 대가는 삼 냥 오 전, 돈피 두 장이 법에 정한 바라.
 열두 사람 없는 구실 합쳐 보면 사십육 냥
 해마다 맞춰서 물어 내니(천하의 부자인) 석송인들 당하겠느냐.
 얼마 안 되는 농사를 전부 버려 두고 삼을 캐러 산에 들어가
 허항령 보태산을 돌고 돌아서 찾아보니
 인삼 싹은 전혀 없고 오가피잎이 나를 속인다.
 하릴없이 헛되이 돌아와서 팔구월 고추(쌀쌀한)바람 안고 돌아 산에 들어가 돈피 사냥을 하려고
 백두산을 등에 지고 강 아래로 내려가서
 싸리 꺾어 누대 치고 앞갈나무로 모닥불을 놓고
 하나님께 빌고 산신님께 발원하여
 물채줄을 갖춰 꽃고 사망 일기를(이익이 많이 남기를) 소원하였는데,
 내 정성이 부족한지 사망 기회가 불지 않네.

(중략)

나라님(임금)께 아뢰자니 아홉 겹의 대궐문은 멀고
 요임금과 순임금 같은 우리 임금이 해와 달같이 밝으신다고 한들
 임금의 교화가 미치지 못하는 이 극변방(갑산)에 복분하라 바치겠느냐?
 그대 또한 내 말을 들어 보소, 다른 지역의 소식을 들어 보게.
 북청의 부사가 누구신지 성명은 잠깐 잊었네.
 많은 군정을 편학 보전하고 죽은 사람들의 원통한 마음을 풀게 하고
 각 부대 초관이 여러 신역을 여러 집에 나누어서 걷으니,
 많으면 다섯 돈, 폰수 적으면 세 돈이라
 인근(고을의) 백성들이 이 말을 듣고 (북청으로) 남부여대 모여드니
 군정 허오가 없어지고 백성들이 사는 집이 점점 늘어 간다.
 나도 또한 이 말을 듣고 우리 고을 군정의 신역을
 북청의 예를 들어 관찰사에게 민원을 올렸는데,
 본 고을에 맡겨서(본 고을에서) 제사를 맡아 본 관아에 부치데 된즉,
 옳고 그름은 묻지 않고 형문을 한 번 맞았던 말인가.
 천신만고 끝에 풀려나서 고향에서의 삶을 다 떨치고
 이웃 친구에게 하직없이 노인은 부축하고 어린아이는 보살펴서 한밤중에
 후치령 길을 비켜 두고 금창령을 허우적거리며 넘어
 단천 땅을 바로 지나 성대산을 넘어서면
 북청 땅이 거기 아닌가, 사는 곳의 좋고 나쁨을 다 떨치고
 모든 가족을 편히 보전하고 신역 없는 군사 되세.
 내 곧 신역이 이러하면 (북청과 같다면) 친족들과 이별하고 조상의 묘를 버리겠느냐.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나님께 비나이다.
 총군애민 북청 원님을 우리 고을에 빌려주시면

군정의 도탄함을 그려다가 임금님께 올리리다.
 그대 또한 내년 이때에 처자식과 동생을 거느리고
 이 영로에 접어들 때에 그때 내 말을 깨달으리라.
 내 마음속에 있는 말을 횡설수설하려 하면,
 내일 이때 다 지나도 반 남짓 모자라리.
 해가 저물어 바삐 갈 길이 머니 하직하고 가노라.

▣ 핵심 정리

- 연대 : 조선 영·정조 때
- 갈래 : 가사 . 평민가사
- 운율 : 3.4조와 4.4조가 섞인 가사체. 운문체
- 주제 : 갑산 백성들의 학정에 시달리는 참상을 묘사

▣ 이해와 감상

작자는 성대중이 함경도 북청부사로 있을 때, 이웃 고을인 갑산에 살던 사람이다. 작품의 내용은 도망하는 갑산 군사들에게 어디로 가나 어려움을 마찬가지이니 그대로 참고 살라는 권면으로 시작하여, 집안의 내력을 노래하고 부역을 감당할 수 없는 처지로 세간을 모두 팔아 관아에 바치고 학정에 아내마저 잃고 집은 폐가가 되었으나, 왕의 은택이 미치지 못함을 한탄하며 북청부사의 선정을 기대하여 그곳으로 도망친다는 것으로 끝을 맺고 있다. 표현 수법은 정철의 속미인곡이나 박인로의 '누항사' 드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은 대화형식으로 실상 부사 성대중의 선정을 찬양한 것이지만 표면적으로 갑산 백성들의 학정에 시달리는 참상을 묘사하고 있다.

성대중(成大中)이 북청부사로 있을 때 크게 선정을 베풀어 인근 고을에까지 명성이 자자했다고 한다. 그때 이웃 갑산에 사는 사람이 학정(虐政)을 견디지 못하여 선정이 이루어지던 북청으로 도망오게 되었는데, 작품은 그 과정을 노래하고 있다. 부역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학정에 시달리는 갑산 사람들의 어려운 현실, 살림이 없어지고 가정이 파괴되었으나 왕의 은택은 미치지 않는 한탄스런 상황을 담고 있다. 《거창가(居昌歌)》 《향산별곡(香山別曲)》과 함께 조선 후기 하층민들을 대상으로 하여 그들의 참상과 정치부재의 현실을 묘파한 몇 안 되는 작품이다. 이 가사의 창작 이면에는 부사 성대중의 선정을 기리는 의도가 내재되어 있기도 하다.

▣ 유형적 특징

1) 위기의식의 표출

현실비판가사는 모두 농촌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철저히 농본주의에 입각하여 농촌사회의 붕괴에 대한 위기의식을 드러낸다. 농민들이 더 이상 살아갈 수 없을 만큼 생존권이 위협당하자, 살고 있던 향촌으로부터 점차 이탈되어 나가는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

<갑민가>는 향촌사회를 중심으로 유리행위 당사자들 간에 그 행위 자체에 대한 심각한 갈등이 내재해 있음을 대화체 형식의 전개를 통하여 사실적으로 보여준다. 생원과 갑산민은 모두 갑산읍민으로서 유리행위에 대해 각자의 견해를 개진하고 있는 것이다. 생원은 유리하지 말고 차라리 견뎌보자는, 아직은 사태를 낙관적으로 보고 소극적 안정추구자의 입장을 밝힌 것이라면, 갑산민은 유리행위를 선택한 자로서 논리적·적극적으로 그 행위의 필연성과 정당성을 내세우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생원의 발언은 살던 고향을 등지고 유리해 가는 데 대한 위기의식으로 총만해 있다. <갑민가>는 이러한 유리행위에 대한 불안의식을 현실로 인정하면서 출발한다. 유리 도망의 필연성과 유리해 가는 곳이 북청임을 밝히고 그곳에서의 납세를 공언함으로써 유리행위의 정당성을 아울러 말한다. 유리행위가 가져다줄 삶의 불안과 농

촌사회의 파괴에 대한 위기의식이 팽배한 사회 분위기 속에서, 그러한 현실이 왜 일어나게 되는지를 <갑민가>는 말하고자 한다.

2) 정치·사회 현실의 비판

① 수취제도 비판

<갑민가>는 한 사람이 일족을 대신하여 13인분의 신역을 치러야만 하는 지경에까지 이른 족징의 폐단을 비판하고 있다. 1인이 한꺼번에 13인분의 신역을 부담해야 했던 사정은 과정적이긴 하지만 당시 족징의 폐단과 나아가 수취제도 전반의 문란현상을 단적으로 드러내주는 전형적인 사건이다.

② 목민관 비판

현실비판가사는 문란한 수취제도를 빗어낸 장본인으로써 수령은 집중적으로 비판하고 그 하수인으로서의 향리층 및 향임층과 그 감독관으로서의 감사를 비판하고 있다. <갑민가>에서 직접적으로 본관 사또를 비난하지는 않고 있다. 그러나 '우리사또 분부 내에 각초군 제신역을 돈피외에 받지 말라'의 구절에 서와 같이 부조리한 군정제도를 빗어내는 장본인이 수령임을 나타낸다.

③ 과거제도 비판

<갑민가>는 과거제도에 대한 언급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 몰락한 사족의 한 사람으로서 갑산민은 이미 생존이 위협 당하는 지경에 이르렀고 읍민의 일원으로 신분회복 의지를 전혀 보여주지 않고 있다.

■ 사회비판 의식

1) 수탈의 잔혹성과 수취제도 문란상에 대한 폭로와 비판

양반관료들은 가혹한 징세로 향촌민들에게 파산과 이농을 강요하고 세금만 독촉해 남은 백성마저 유리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었다. 백성은 생존의 살 길을 잃고 해매는 데도 관료는 관료대로, 임금은 임금대로 따로 놓고 있는 수취제도 내지 통치질서의 문란상을 개탄하고 있다.

2) 지배체제의 폐쇄성에 대한 비판

억울한 일을 당하고 나서 두 번이나 의송을 올려보았지만 관료들은 번거롭게 굴지 말라며 위협을 하거나 형문만 가했으며 임금에게는 아예 호소할 길마저 막혀 있으니 하의상달이 전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3) 착취당하는 농민의 참상에 대한 고발

족징·파산·상해·가족의 죽음·형문·유리 등은 어느 것 하나 생존을 위협하지 않는 것이 없으며 그것은 하나같이 착취의 방법이거나 그 직접적인 결과였다.

4) 향촌사회의 피해상과 거기서 오는 위기의식의 반영

과다한 징세로 향촌민들이 하나둘씩 떠나고 누대봉사로 어쩔 수 없이 묶여있던 향촌민마저 족징과 억압을 감당할 수가 없어 고장을 떠나는 현상은 향촌사회가 붕괴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극도의 피해상을 반영한다. 갑산민의 도망은 생존의 위기에서 온 것이며 갑산민의 유리행위가 위기의식의 소산이듯이 생원의 발언 역시 살던 고향을 등지고 유리해 가는데 대한 위기의식으로 총만해 있다. 그들의 위기의식은 피해하고 붕괴 되어가는 향촌사회에 대한 위기의식이기도 하다.

2021
수특

2021 EBS 수능특강 문학 2. 적용학습 고전시가 09 집장가 작자미상 분석

이 콘텐츠는 「콘텐츠산업 진흥법」,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본 콘텐츠의 무단 배포 시, 콘텐츠산업 진흥법과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지문 분석

집장 군노(執杖軍奴)(지방 관청 등에서 곤장을 때리는 일을 하는 하급 관리) 거동(舉動)을 보라(구어체, 판소리 사설체의 성격을 드러냄)

[춘향을 동틀에다 쫓그라니 울려 매고

형장(刑杖)을 한 아름을 디립다 덩석 안아다가

춘향의 앞에다가 좌르르 펼뜨리고](집장 군노가 춘향을 매질하기 위해 하는 행동 묘사)

좌우 나졸(죄인을 문초할 때 형장으로 때리는 일을 맡은 이들)들이 집장(執杖) 배립(排立)(윗사람을 모시고 섬)하여

분부 듣주어라 여쭙어라

바로바로 아뢴 말씀 없소 사또 안전(案前)에 죽여만 주오(죽음을 각오한 춘향의 말)

집장 군노 거동을 보라(작품에서 반복되는 구절, 음악성을 배가하고 사건 진행에 따라 서사를 구분 짓는 역할을 함)

형장 하나를 고르면서 이놈 집어 느긋느긋 저놈 집어 눈척눈척(음성 상징어를 사용하여 내용을 생동감 있게 전달함)

[춘향이를 결눈을 주며(주체 : 집장 군노) 저 다리 들어라(춘향을 향한 집장 군노의 말)

골(骨) 부러질라 눈 감아라 보지를 마라

나 죽은들 너 매우 치랴느냐 걱정을 말고 근심을 마라](집장 군노가 매질을 당할 춘향을 걱정하는 것)

집장 군노 거동을 보라(작품에서 반복되는 구절, 음악성을 배가하고 사건 진행에 따라 서사를 구분 짓는 역할을 함)

형장 하나를 골라 쥐고 선뜻 들고 내닫는 형상(形狀)

지옥문 지키었던 사자(使者)가 철퇴를 들어 매고 내닫는 형상(형장을 쥐고 춘향을 매질하려고 하는 집장 군노의 모습을 보여줌)

좁은 골에 벼락치듯 너른 들에 번개하듯(직유법을 통해 표현 효과를 높이고 있음)

십 리만치 물러섰다가 오 리만치 달려 들어와서

하나를 드립다 딱 부치니 아이구 이 일이 웬일이란 말이오(① 매질을 당한 춘향의 말 ② 매질을 당하는 춘향을 보는 사람들의 반응 ③ 노래를 하는 가수의 말 등으로 볼 수 있음)

허허 야 년아 말 듣거라

꽃은 피었다가 저절로 지고

앞은 돌았다가 다 똑똑 떨어져서

허허한치 광풍(狂風)의 낙엽이 되어

청버들(절망적 상황에 이르게 될 춘향을 상징함)을 좌르르 훑어

맑고 맑은 구곡지수(九曲之水)에다가 풍기덩실 지두덩실

흐늘거려 떠나라 가는구나(춘향에게 비극이 일어날 것임을 상징적으로 전달함)

말이 못된 네로구나

- 작자 미상, '집장가(執杖歌)'

▣ 핵심 정리

■ 갈래 : 잡가

■ 운율 : 4.4조, 4음보

■ 주제 : 집장 군노의 거동과 춘향의 매질

■ 특징

- ① 동일한 통사 구조의 반복을 통해 대상의 행위를 강조함.
- ② 집장의 행위와 집행 과정을 시간적 순서에 따라 묘사하여 비장미를 보여줌.
- ③ 비유법을 활용하여 현장 상황을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다.

▣ 이해와 감상

「집장가」는 이도령이 한양으로 올라가고 나서 신관 사또가 내려와 무고한 춘향을 매질할 때 집장 군노의 우쭐거리는 거동을 묘사한 잡가이다. 춘향이 그 매를 견디면서 한 대에 한 마디씩 변치 않는 굳은 마음을 노래한 것이 「십장가」이다. 따라서 양산 지역의 「집장가」는 엄밀히 하면 「십장가」로 해야 한다. 「집장가」와 「십장가」는 둘 다 12 잡가로, 널리 애창되면서 제목이 혼동된 듯하다. 조선 후기 이후 잡가가 흥행하면서 양산 지역에서는 「십장가」를 창부타령 곡에 얹어 부른 것으로 보인다. 전체 가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개를 바꾸치니/ 일자로 아뢰리다/ 일편단심 우리의 낭군은/ 일거이 삼촌(추)의 보고짚(싶)고/ 두번째 딱 붙이니/ 이자로 아뢰리라/ 이군불건은 충신이요/ 이부불건은 열녀이라/ (이후여보 내진탕약에 이시지 황애를 면헌데)/이천지 지양간들/ 의심을 부우리까/ 이팔청춘 젊은 나를/ 이천명천 하옵소서/ 세번째 딱 붙이니/ 삼자로 아뢰리다/ 삼세불사 하는~~/ 당장에 낙을 잃으리요/ 장관같이 뺏난 마음을/ 삼중지해가 부러서니/ 삼월화용을 잊지마소/ 네번째 딱 붙이니/ 사자로 아뢰리라/ 자오세조 더운 검이/ 사해삼경 서울없고/ 자유상단 어진정성/ 사해약을 바랬더니/ 사사장천 굳은 정을/ 맥많이 진다고 굽어가면/ 죽기 쉽다고 해절하리/ 다섯채를 딱 붙이니/ 오자로 아뢰리다/ 오마노 오셨던 사또/ 오뉴월 받드시오/ 오실사중 우리 무는/ 오는 중에도 제일이라/ 오피 물수 하는 관장을/ 오는 어찌나 잊으리오/ 여섯채를 딱 붙이니/ 육자로 아뢰리다/ 육국육신 육관 관속을 막오는데/ 유월비상 춘향의 정분/ 육신을 이어주소/ 금사또 거동보소, 무슨 말씀 하시는지/ 저 찢어질년이 떠정 동편을 모르거나/ 춘향이 대답하되/ 떠정동편이 무엇이요/ 요렇게 대답하니/ 감사또 할 말 없어/ 저저 찢어죽일년/ 매를 어서 따려므나/ 춘향이 대답하되/ 뜻없는 대장부/ 명령을……/ 유부녀 강간하려는 죄는/ 어떻게 하려 하느뇨/ 일곱채를 딱 붙이니 / 칠자로 아뢰리다/ 칠월칠석 견우직녀는/ 년년이 상봉을 하건마는/ 칠벽리 가신 낭군은/ 어떻게 이렇기 못보는고/ 할수없는 이 내몸은/ 칠부귀가 되단말가/ 여덜채를 딱 붙이니/ 팔자로 아뢰리다/ 팔십설에 패장만나/ 팔자시면 춘향전고/ 팔번이나 굽히리까/ 아홉채를 딱 붙이니/ 구자로 아뢰리다/ 구곡에 학이되야/ 구만리 창공을 높이날라/ 구곡간장 맺힌 한을/ 구월 상풍에 풀어보까/ 열개는 딱 붙이니/ 십자로 아뢰리다/ 십절군사 하더라도/ 신태진다고 해절하면/ 시호야 보름달은/ 구름속에 들었는데/ 제일먼저 우리 낭군/ 반벽성에 들었는가

2021
수특

2021 EBS 수능특강 문학 2. 적용학습 고전시가 09 형장가 작자미상 분석

이 콘텐츠는 「콘텐츠산업 진흥법」,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본 콘텐츠의 무단 배포 시, 콘텐츠산업 진흥법과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지문 분석

형장(刑杖)(죄인을 신문할 때에 쓰던 몽둥이) 태장(笞杖)(불기를 치는 데 쓰던 몽둥이) 삼(三)모진 도리
매로
하날(하나) 치고 짐작할까 돌을 치고 그만둘까
삼십도(三十度)(삼십 번)에 맹장(猛杖)(불기를 몹시 때림)하니 일촌간장(一寸肝藏)(한 토막의 간과 창자라
는 뜻으로, 주로 애달프거나 애가 탈 때의 마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다 녹는다
걸렸구나 걸렸구나 일등 춘향(一等春香)이 걸렸구나(‘a.a.b.a’ 구조)
사또 분부 지엄(매우 엄하다)하니 인정일랑 두지 마라
국곡 투식(國穀偷食)(나라의 곡식을 훔쳐 먹음)하였느냐 엄형 중치(嚴刑重治)(엄한 형벌로 무겁게 다스
림)는 무삼 일고
살인 도모(殺人圖謀)하였느냐 항쇄족쇄(項鎖足鎖)(목에 칼을 씌우고 발에 착고를 채움)는 무삼 일고
관전 발악(官前發惡)(관청에서 온갖 짓을 하여 악을 씀)하였느냐 옥골 최심(玉骨摧甚)(뼈를 심하게 꺾음)
은 무삼 일고
불쌍하고 가련하다 춘향 어미가 불쌍하다(춘향 어미에 대한 동정심)
먹을 것을 옆에다 끼고 옥 모퉁이로 돌아들며(춘향 어미의 모습을 묘사함)
몸쓸 년의 춘향이야 허락 한마디 하려무나(춘향 어미가 춘향에게 건네는 말)
아이구 어머니 그 말씀 마오 허락이란 말이 웬 말이오
옥중에서 죽을망정 허락하기는 나는 싫소(정조를 지키고자 하는 춘향의 말)
새벽 서리 찬바람(감각적 표현)에 울고 가는 기러기야
한양성내 가거들랑 도련님께 전하여 주렴(한양으로 간 임을 그리워하는 춘향의 마음)
날 죽이오 날 죽이오 신관 사또야 날 죽이오(‘a.a.b.a’ 구조)
날 살리오 날 살리오 한양 낭군님 날 살리오
옥 같은 정강이에(직유법) 유혈이 낭자하니 속절없이 나 죽겠네
옥 같은 얼굴에 진주 같은 눈물(직유법, 춘향의 슬픔)이 방울 방울 방울 떨어진다
석벽 강상(石壁江上) 찬바람은 살 쏘듯이 드리불고
벼룩 빈대 바구미는 예도 물고 제도 뜯네(춘향의 고통스러운 상황을 상징적으로 드러냄)
석벽(石壁)에 섰는 매화(‘매화’는 지조의 상징으로서 춘향을 가리키며, 이 매화가 석벽에 섰다는 것은 위
태로운 상황에 놓여 있음을 말해줌) 나를 보고 반기는 듯
도화 유수(桃花流水) 묘연(渺然)히(복숭아 꽃 흐르는 물에 아득히) 뚝 떨어져 굽이 굽이 굽이 솟아난다
- 작자 미상, ‘형장가(刑杖歌)’

▣ 핵심 정리

- 갈래 : 잡가
- 주제 : 춘향의 고난과 임에 대한 영원한 사랑
- 구성
- 1~8행 : 춘향의 모진 형장과 고난

- 9~13행 : 춘향 모의 설득과 춘향의 정절
- 14~17행 : 신관 사또에 대한 원망과 임에 대한 그리움
- 18~21행 : 춘향의 자신의 처지에 대한 탄식
- 22~23행 : 춘향의 현실 극복 의지와 지조

■ 특징

- ① 경기 12잡가의 하나
- ② 춘향이 매를 맞고 흐느껴 우는 자탄가에 해당함.
- ③ 설의법을 빈번하게 사용해 춘향의 억울함과 구경꾼들의 안타까움을 강조함.
- ④ 'a-a-b-a'의 구조를 활용해 리듬감을 살리고 의미를 강조함.
- ⑤ 대조와 반복을 통해 춘향의 애절한 심리를 전달함.

▣ 이해와 감상

사설이 길다는 뜻에서 긴잡가라고도 하며, 앉아 부르기 때문에 좌창(坐唱)이라고도 한다. <유산가 遊山歌>·<적벽가 赤壁歌>·<제비가>·<소춘향가 小春香歌>·<집장가 執杖歌>·<형장가 刑杖歌>·<평양가 平壤歌>·<선유가 船遊歌>·<달거리>·<십장가 十杖歌>·<방물가 房物歌>·<출인가 出引歌>이다. <유산가>에서 <선유가>까지를 8잡가(八雜歌)라 하고, <달거리> 뒤의 4가지 잡가를 잡잡가(雜雜歌)라고도 한다. 조선 말기에 발생한 것으로 서울의 청파동 일대인 사계(四契) 축 소리꾼들 사이에서 많이 불렸다. 1900년대의 추교신(秋敎信)·조기준(曹基俊)·박춘경(朴春景) 등이 명창으로 알려져 있다. 음악적 특성은 <달거리>와 <집장가>를 제외한 대부분 노래의 한 장단이 6/4박자이다. <달거리>·<출인가> 등을 제외한 나머지 곡들은 폭넓은 요성(搖聲)이 중간음에 오는 등 서도(西道)의 창법과 선법이 쓰이고 있다. 십이잡가는 <유산가>처럼 가사(歌辭)에서 온 것도 있으며, <소춘향가>처럼 판소리에서 온 것도 있다. 따라서 문학적 성격을 하나로 규정하기는 어렵다.

이 작품은 판소리 '춘향가(春香歌)'의 옥중 장면 중 '자탄가'에 해당하는 부분을 다룬 잡가이다. 춘향이 사또의 모진 형장을 맞고 옥중에서 고생하는 대목을 독립된 소리로 만든 노래이다. 앞부분은 옥에서 끌려 나온 춘향이 매를 맞는 장면이고 춘향 모의 행동과 발언, 이에 대한 춘향의 발언이 이어지는데 '춘향가'에서처럼 춘향의 정조와 절개, 그리고 임에 대한 열렬한 사랑을 표현하고 있다. 마지막 부분에서는 상징적인 상황을 통해 춘향의 처지, 심경을 애달프게 드러내고 있다. 이 부분은 춘향의 목소리에 의해 내용이 전개되는데, '옥 같은 정강이'의 '유혈', '방울방울방울' 떨어지는 '진주' 같은 '눈물'은 춘향의 역경을 구체적으로 형상화한다. 한편 '매화'는 춘향의 한결같은 마음 또는 춘향이 지향하는 바를 나타낸 자연물이다. 석벽에서 있는 매화는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는 춘향의 모습을 애뜻하게 표현한다. 그런데 '매화 나를 보고 반기는 듯'에서 알 수 있듯이 춘향은 의연한 자세와 의지적인 태도로 자신에게 닥친 이러한 고난을 이겨 내려고 한다. 전체적으로 인물들의 발언, 행위 묘사, 편집자적 논평을 통해 극적인 상황을 생동감 있게 전달하고 있다.

2021
수특

2021 EBS수능특강문학 2.적용학습 고전시가 10정선아리랑 작자미상 분석

이 콘텐츠는 「콘텐츠산업 진흥법」,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본 콘텐츠의 무단 배포 시, 콘텐츠산업 진흥법과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지문 분석

명사십리(곱고 부드러운 모래가 끝없이 펼쳐진 바닷가)가 아니라면은 해당화는 왜 피나
 모춘 삼월(음력 3월)이 아니라면은 두견새는 왜 우나
 ▶ 자연의 섭리

일본에 동경이야 그 얼마나 좋드냐
 꽃 같은(직유법) 나(화자)를야 두고서 연락선(떠남과 이별을 의미함)을 탔나
 ▶ 이별과 원망

서산에 지는(하강 이미지) 해는야 지구야 싶어 지나
 나(화자)를 버리고 가시는 임은야 가구야 싶어 가나('지는 해'와 '가시는 임'이 대구를 이룸)
 ▶ 떠남에 대한 이해

정선이 좋다고 하여도 딸 주지는 말어라
 강낭밥 사절치기에 어금니 다 빠졌구나(궁핍함을 해학적으로 표현함)
 ▶ 정선에서의 궁핍한 삶

정선에 구명(고려 때 정선을 '무릉도원'이라 일컬은 것)은 무릉도원 아니냐
 도원은 어디를 가시구 산만 총총하네(이상적 공간인 줄 알고 왔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음-화자의 답답한 심정)
 ▶ 산속에 놓인 정선의 위치

▣ 현대어 해석

명사십리가 아니라면 해당화는 왜 피나.
 늦은 봄 삼월이 아니라면 두견새는 왜 우나.

일본 동경이 그 얼마나 좋더냐.
 꽃 같은 나를 두고 연락선을 탔느냐.

서산에 지는 해는 지고 싶어지나.
 나를 버리고 가시는 임은 가고 싶어 가나.

정선이 좋다고 하여도 딸 주지는 마라.
 부족한 옥수수밥에 어금니 다 빠졌구나.

정선의 옛 지명이 무릉도우너 아니었나.
 무릉도원은 어디 가고 산만 첩첩이네.

▣ 핵심 정리

■ 갈래 : 민요(民謠)

■ 성격 : 서정적, 애상적

■ 주제 : 삶의 애환

■ 특징

① 정선의 지역적 특성과 지역민의 삶의 모습 및 정서를 담고 있음

② 시대의 흐름에 따른 인간상을 다양하게 노래함

■ 의의 : 강원도의 거의 모든 지역에 전승되고 있으며, 강원도 무형 문화재 제1호로 등록되어 있음

▣ 이해와 감상 1

정선 아리랑은 '정선 아라리' 또는 '아라리'라고 부르는 강원도의 민요이다. 이 노래에는 가난 속에서도 낙천적으로 살아온 강원도 정선 사람들의 정서가 담겨 있다. 사랑과 이별 등의 삶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으며, 강원도 정선 지방의 지명이 빈번히 등장하여 지역적 특수성을 드러낸다. 이 노래는 후에 여러 지역으로 전파되어 널리 수용되었고, 그 과정에서 그 지역의 특성이 작품에 접합되면서 가사와 가락이 바뀌거나 첨삭되는 변이 작용을 겪게 되었다. 이는 지역의 특성에 따른 문학의 재창조 사례라 할 수 있을 것이다.

▣ 이해와 감상 2

'정선 아리랑'은 강원도 정선 지역의 민요로, 정선 지역의 자연환경, 향토색과 지역민의 정서가 고스란히 녹아 있으며, 다소 느리고 단조로운 흐름 속에 토속적 어휘와 구어적 표현을 통해 주제를 형상화하고 있다. 모를 심을 때나 논밭을 맬 때 두레판의 소리로 불러 노동요의 성격을 띠기도 한다. 작품의 구성은 정선 사람들의 다양한 삶의 모습과 정서를 해학적으로 형상화한 두 줄짜리 노랫말에 후렴구가 뒤따르는 선후창 형식을 띠고 있으며, 민요의 특성상 그 노랫말의 내용이 다양하게 변화, 추가된다. 각 연의 내용은 하나의 주제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상황과 정서가 나열된 형태로 계속 이어 부를 수 있는 열린 구조의 노래이다.

2021
수특

2021EBS수능특강 문학 2.적용학습 고전시가11 제가야산독서당 최치원 분석

이 콘텐츠는 「콘텐츠산업 진흥법」,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본 콘텐츠의 무단 배포 시, 콘텐츠산업 진흥법과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지문 분석

철철한 돌 사이로 미친 듯 내뿜어 **겹겹 봉우리에 울리니**(물소리의 웅장함 ↔ 세속의 소리)
 狂奔疊石吼重巒

사람 말소리(세속의 소리 ↔ 자연의 물소리)야 지척에서도 분간하기 어렵네
 人語難分咫尺間

항상 **시비하는 소리**(분쟁과 갈등을 일으키는 세속의 소리 ↔ 자연의 물소리) 귀에 들릴까 두려워하기에
 常恐是非聲到耳

일부러 **흐르는 물**(속세와 단절시키는 매개물)로 하여금 **온 산을 둘러싸게 했네**(세상에서 벗어나 자연에
 서 은둔하고자 하는 마음)
 故教流水盡籠山

- 최치원, '제가야산독서당(題伽倻山讀書堂)'

▣ 핵심 정리

- 갈래 : 한시, 7언 절구
- 성격 : 서정적, 상징적
- 제재 : 물소리
- 주제 : 세상과 단절하고 산속에 은거하고 싶은 마음
- 특징 : ① 물의 이미지를 사용하여 시상을 전개함. ② 대조를 통해 주제를 형상화함.
- 연대 : 통일 신라 말기(9세기)
- 출전 : “동문선” 권 19

▣ 이해와 감상

이 작품은 통일 신라 말기의 문장가 최치원이 지은 7언 절구의 한시이다. 가야산의 독서당에서 지었다는 의미를 지닌 제목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이 작품은 신라 말기의 혼란한 시대 상황 속에서 육두품 지식인으로서 한계를 경험한 작가가 가야산 해인사에 은거하면서 지은 것이다.

화자는 거센 물소리로 인해 가까운 곳의 말소리도 들리지 않는 깊은 산속에 은거하고 있다. 이곳에서 혹시 세상의 시비하는 소리가 들릴까 걱정하며 물로 온 산을 둘러 버렸다고 표현하였다. 세상의 시비하는 소리와 물소리를 대조하여, 물소리로 세속의 소리를 차단함으로써 세상과 격리되어 자연에 은둔하고자 하는 시적 화자의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세상으로부터 단절되고 싶어 하는 마음의 밑바탕에는 신라 말 어지러운 현실 속에서 절망할 수밖에 없었던 지식인으로서의 고뇌와 좌절이 깔려 있다고 볼 수 있다.

▣ 자연물의 주관적 해석

이 작품에서는 본래 물이 산 주위를 흐르고 있는 것을 화자 자신이 물로 산을 둘러싸었다고 표현하여 자연물을 주관적으로 변용하고 있다. 이러한 발상은 다른 작품에서도 종종 발견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송

순의 시조 '십 년을 경영하여~'에서는 화자가 달, 바람에게도 초가삼간의 방 한 칸씩을 내어 주고, 강과 산은 들일 방이 없어 집 주위에 병풍처럼 둘러 두고 보겠다는 표현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또한 황진이
의 시조 '동지스달 지나긴 밤을~'에서도 '밤'이라는 추상적 시간을 '허리'라는 구체적인 사물로 변형시켜
화자의 소망과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재치 있는 발상은 시적 화자의 주체적인 의지를 드러내는
효과를 지닌다.

▣ 대조법을 활용한 효과

이 작품의 1구와 4구에서는 자연의 물소리를, 2구와 3구에서는 세상 사람들의 시비하는 소리를 제시
하여 자연 속의 삶과 세상 속의 삶을 서로 대조시키고 있다. 이는 시비하는 소리가 난무하는 혼란스러
운 세태에서 벗어나 자연에 은둔하고자 하는 화자의 의지를 극명하게 보여 주는 것이다.

▣ 시어의 실질적 의미

이 작품에서 '인어(人語)'란 단순히 사람들의 말소리를 뜻하는 것이 아닌, 사람 사이의 분쟁과 시비, 어
지러움 등을 가리킨다. '공(恐)'은 그러한 사람들의 시비 소리가 들려올까 두려워하는 화자의 마음이라
고 할 수 있다. '룽(籠)'은 둘러싼다는 뜻으로 흐르는 물이 산을 감싸므로 얼핏 보면 물이 주체인 것 같
지만, 사실은 흐르는 물에게 산을 감싸라고 하는 주체는 화자가 된다. 물소리를 이용하여 세상과 단절
하고 싶은 의지의 표현인 것이다.

2021
수특

2021 EBS 수능특강 문학 2.적용학습 고전시가11 아청도의성 양태사 분석

이 콘텐츠는 「콘텐츠산업 진흥법」,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본 콘텐츠의 무단 배포 시, 콘텐츠산업 진흥법과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지문 분석

가을 하늘에 달 비치고 은하수 밝은데(시간적, 계절적 배경)

霜天月照夜河明

나그네 돌아가고 싶은 생각(수구초심 :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에 각별히 정회가 생기네

客子思歸別有情

긴 밤 지루하게 앉아 죽을 듯이 시름겨운데

厭坐長宵愁欲死

문득(화자가 우연히 다듬이질 소리를 듣게 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음) 이웃 아낙네의 다듬이질 소리(시를 쓰게 된 계기) 들려오네(청각적 이미지)

忽聞隣女擣衣聲

바람(다듬이질 소리를 전달하는 매개체)에 실려 오는 소리 끊어질 듯 이어지며

聲來斷續因風至

밤 깊어 별 기울도록(시간의 경과) 잠시도 멎지를 않네

夜久星低無暫止

고국을 떠난 뒤(화자의 현재 상황 : 고국을 떠나 타국에 머무르고 있음)로는 들어 보지 못했는데

自從別國不相聞

지금 타향에서 듣는 소리 서로 비슷하네(화자가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깊어지는 이유)

今在他鄉聽相似

[고운 방망이 무거운지 가벼운지 알 수 없고

不知綵杵重將輕

다듬잇돌 평평한지 아닌지도 모르겠지만

不悉青砧平不平

불쌍해라(감정의 직설적 표출), 몸 약해 향기로운 땀 많을 터이니

遙憐體弱多香汗

알겠노라, 옥 같은 팔 벌써 매우 지쳤음을(도치법)

預識更深勞玉腕

마땅히 나그네 홀웃에 보태고자 함인가](여인이 다듬이질을 하는 이유에 대한 화자의 추측)

爲當欲救客衣單

[다시 먼저 규방의 추위를 시름겨워 함인가

爲復先愁閨閣寒

비록 얼굴 모습 단절되어 있어 물어보기 어렵지만](여인이 다듬이질을 하는 이유에 대한 화자의 추측)

雖忘容儀難可問

아득한 그 마음이 까닭 없는 원망은 아니리라

不知遙意怨無端

이국땅에 머물면서 새로 사귀 이 없었는데(화자의 처지 : 타국에서 외로움을 느끼고 있음)

寄異土兮無新識

같은 마음이라 생각하니 긴 한숨 나오네(다듬이질을 하는 여인에게 동병상련을 느낌)

想同心兮長歎息

이 시간에 홀로 규중의 소리 듣고서

此時獨自閨中

그 누가 알라(설의법), 이 밤에 밝은 눈동자 찡그림을

此夜誰知明眸縮

떠올리고 떠올려서(어휘의 반복을 통해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강조함) 마음에 이미 걸려 있지만

憶憶兮心已懸

거듭 들어 봐도 꿰뚫어 알아차릴 수가 없네

重聞兮不可穿

곧 꿈에라도 소리 나는 곳을 찾아가 보려 하지만

卽將因夢尋聲去

다만 시름이 많아서 잠들 수가 없구나(고향에 대한 그리움)

只爲愁多不得眠

- 양태사, '야청도의성(夜聽擣衣聲)'

▣ 핵심 정리

- 갈래 : 한시
- 형식 : 칠언배율
- 연대 : 발해국 문왕 23년(759)
- 주제 : 향수. 타국에서 가을 달밤에 고국을 그리워함
- 성격 : 서정적
- 구성 : 24행
- 표현 : 직서법
- 출전 : <경국집>
- 의의 :

- ① 발해의 시인이 남긴 작품 중에서 가장 장편이고 정감이 풍부하다.
- ② 발해 시대의 문학을 이해할 수 있는 자료이다.
- ③ 당시 외교 활동 빈번했음을 알 수 있다.

▣ 이해와 감상 1

발해의 시인 양태사(楊泰師)가 지은 한시. 양태사는 발해 문왕 때 귀덕장군(歸德將軍)으로 시에 능하였다. 759년(문왕 23)에 일본에 부사(副使)로 갔다가 송별연에서 <밤에 다듬이 소리를 듣는다 夜聽棘衣聲> 는 시를 지어 읊었다 한다. 일본에서 편찬한 한시집 <<경국집 經國集>>에 전한다.

모두 24행으로 된 칠언배율인데, 기록이 부실해서 뒷부분은 표기가 혼란되어 있다. 어느 가을밤에 고국으로 돌아올 생각을 하고 있는데, 홀연 이웃에서 여인네가 다듬이질하는 소리가 들렸다는 것으로 서두를 삼았다.

다듬이질 소리에 실려 온갖 상념이 떠오른다고 하면서, 그 여인은 누구이며 왜 밤늦도록 다듬이질을 하는가 생각해보았다. 다듬잇방망이가 무거운가, 다듬잇돌이 평평한가 궁금하게 여기다가, 연약한 몸으로 향그러운 땀을 흘리며 일하는 여인의 모습을 상상해보기도 하였다.

다듬이질은 일본에는 없는 풍속이다. 그 여인은 반드시 발해 사람은 아니라도 동족 이주민일 터이므

로, 다듬이질하는 소리를 듣고 친근감을 느끼고 고국을 생각하였다. 발해 시인이 남긴 시 중에서 가장 장편이고, 정감이 특히 풍부하다.

■ 이해와 감상 2

양태사(楊泰師)가 발해국의 부사로 일본에 건너갔다가 임무를 마치고 귀국할 즈음에 다듬이 소리를 듣고 고국을 그리워하며 지은 시 두 편 중의 하나이다. 양태사의 이 작품은 스물넉 줄로 된 칠언고시(七言古詩)인데, 의례적인 수사법을 버리고 내면의 세계를 표현하여 감동을 자아내게 한다. 이 시는 특히 청각적 심상이 주제로 승화되는 고도의 표현 기법을 구사했다. 서리 내리고 은하수도 밝은, 가을이 깊은 이국(異國)의 밤에 홀연 어디선가 다듬이 소리가 들린다. 다듬이질은 일본에는 없는 풍속으로, 이는 분명히 고국의 여인이 향수를 달래려고 내는 애련한 소리일 것이다. 그 소리는 끊어질 듯 새벽까지 이어져 여인의 모습까지 상상하도록 유도한다. 이 시에서의 다듬이 소리는 아름다운 선율의 소리로서 여인과 청자의 거리를 좁혀 주고 작자의 격렬한 시름과 탄식을 교차하게 한다. 동시에, 그만큼 조국 발해에 대한 그리움의 정도 깊어진다.